13454

5 소년단

민청 제5차대회를 축하 합니다

5
1964

② 삼천리 강산에 무지개가 비꼈네
공산주의 언덕에 오색다리 놓았네
부모님들 땀흘려 이룩해논 큰 재산
우리는 물려받을 미래의 주인들

(후렴)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5
1964

차 례

과 외 학 습

이것을 아십니까?

표지 1 면— 민청 제 5 차 대회를 축하 합니다. ····· 림 홍은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 시절

(제 14 회)

강 효순

그림 최 순천

12

원수님은 책보를 끼고 이른 아침에 학교로 올라 갔습니다. 원수님은 4, 5 학년이 복식으로 공부하는 기윽(ㄱ)자로 꺾어진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실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 가려던 원수님은 주춤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교실이라기보다 난장판과 같았습니다. 흑판 앞에는 두 세 명이 서서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괴상한 그림들을 그리며 시시닥거리고 있었고 호철이는 제또래되는 아이와 싸움을 하는지 롱을 하는지 쫓아 가고 쫓겨 다니며 와작 떠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흑판 지우개로 몇 번이나 얻어 맞았는지 호길이의 뒤'등에는 백묵 가루가 가뜩 묻었고 머리는 백발 로인처럼 되였습니다. 그는 앙갚음을 해 볼 참으로 흑판 지우개 두 개를 들고 다른 키 큰 아이를 좇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잡히지 않을 양으로 책상 사이를 누벼 요리조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말리려고도 하지 않고 책상에 걸터 앉고 삐거덕거리며 재미 있게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서슬에서도 몇 아이들은 책을 펴 놓고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호철이는 창문 앞에서 다른 아이를 부뜰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흑판 지우개로 머리로부터 얼굴 뒤'등 할 것 없이 도장을 찍듯이 마구 두들겨 놓았습니다. 그 애는 잠간 사이에 밀'가루 독에서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과 머리는 토필 가루를 뒤집어 썼는데 눈만 반짝거릴 뿐이였습니다. 방안에 있던 아이들은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좋아라고 떠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서로 부뎌안았습니다. 마치도 수탉 싸움하듯이 서로 부뜰고 밀며 왔다 밀려 갔다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던 책상이 《꽝》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부뎌안고 밀거니 닥치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창문 앞으로 가까이 가자 호철이 머리가 창문에 부디쳤습니다. 《쩽거뎡》하고 창문이 깨져 나갔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손들을 놓고 멈짓 섰습니다. 그들은 우뚝 서고 서로 바라 보았습니다.

《아새끼 까불어 대더니 꼴 좋게 됐다.》

《누가 할 말을 하니?》

그들은 이런 말들을 주고 받으며 싱긋 웃었습니다.

유리 깨지는 것을 보고서야 아이들도 뿔뿔이 달아나 자기 책상으로 달려 갔습니다. 칠판에 매달려 락서를 하던 아이들도 그제야 그림들을 대강 지우고 분주히 자기들의 자리로 달려 갔습니다. 방안에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코가 막 싸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창문을 열어 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들어 가자'바람으로 이마를 찡그리고 떠드는 아이들을 눈 주어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꽁무니라도 부여 잡고 제 자리로들 돌아 가게 하고 싶은 생각이 불 같이 일어 났으나 그러나 사귀기도 전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매우 편안치 않았습니다. 울컥 치미는 성을 참으며 원수님은 창문 앞으로 가서 《드르릉》하고 창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 바람에 창문 옆에 앉은 아이들이 남은 창문들도 열어 놓았습니다.

이때에 호철이는 원수님을 흘깃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건 유리 깨진 것을 선생에게 고자질했다가는 뼈다구두 추지 못할 줄 알아라.》

이 말을 들은 원수님은 싱긋 웃으며 호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철이는 원수님의 웃는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것이였습니다.

조금 후에 상학 종이 울렸고 뒤'이어 담임 선생이 들어 왔습니다. 강 선생은 교실에 들어 서자 흑판과 교실을 쓱 둘러 보았습니다.

《일어섯!》

하고 학급장이 뒤에서 구령을 치자 일제히 아이들이 일어섰습니다. 호철이는 노상 동가슴을 내밀고 제일 먼저 일어섰습니다.

《경례!》

하고 학급장이 다시 구령을 치자 아이들은 상반신을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학급장의 구령에 따라 그들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탁 앞에 선 강 선생은 학생들의 얼굴들을 흝어 보았습니다. 강 선생 기분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각각 4 학년 또는 5 학년생이 되였습니다. 4~5 학년생이라면 상급생입니다. 물론 6 학년 학생들이 몇명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학교를 더욱 빛내고 더욱 훌륭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써야 합니다. 한 학년씩 높아졌으면 행동에서도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나무 심은 것을 돌아 보았는데 그게 뭡니까. 쓰지도 못할 백양나무가지를 꺾어다가는 꺼꾸로 꽂은 사람이 없나, 뿌리도 없는 아까시야를 심은 사람이 없나…》

강 선생은 잠시 말을 끊고 학생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새로 나온 김 성주 학생을 보시오. 산에 올라 가서 훌륭한 소나무를 캐다가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윤병이와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도와주었지만은 얼마나 좋은 일이오. 오늘 아침 정문으로 들어 올 때 기분이 어떱니까.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 그렸습니까?》 강 선생은 흑판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창 유리는 누가 깨뜨렸습니까?》하고 엄하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철이는 강 선생의 눈을 피해 가며 눈을 더굴더굴 굴려 동무들을 살펴 보고 있었습니다. 방안은 물을 친듯이 조용했습니다. 이 때에 원수님과 호철이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원수님은 호철이에게 슬적 눈짓을 하였습니다. 이야기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시선에는 《네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 하겠다.》는 듯한 표정이 섞여 있는듯 하였습니다.

이때에 맨 앞에 앉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흑판에서 장난했습니다.》

《저두 장난했습니다.》

《저두 했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일어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호철이와 다른 한 아이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누가 깨쳤습니까?》

강 선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그대로 앉아 있기가 매우 민망했습니다. 바늘 방석에라도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무 심은 사실로 방금 칭찬을 받았는데 또 일어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쩐지 쑥스러워 보였습니다. 호철이는 원체 그런 아이니까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아이들은 어째서 그대로 앉아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머구가 그렇게 무서운가 싶었습니다.

이때에 윤병이가 《네》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윤병이가 유리를 깨쳤습니까?》

강 선생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유리는…》

《좋습니다. 유리를 깨뜨린 학생이 직접 이야기 하시오.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으면 앞으로도 좋으니까 직접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강 선생은 윤병이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철이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러나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은 유리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학년을 맞이하는 상급생으로서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학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수업은 산술이였습니다. 강 선생은 좀 우울 해졌던 분위기를 가시고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선지 부러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수업에 림하였습니다. 첫 수업은 암산 문제를 내는 것으로 시작되였습니다.

《어느 농가에 닭의 두구니 열 개가 있었습니다. 첫 두구니에는 한 알, 두번째 두구니에는 두 알, 세번째 두구니에는 세 알, 네번째 두구니에는 네 알, 다섯번째 두구니에는 다섯 알, 여섯번째 두구니에는 여섯 알, 일곱번째 두구니에는 일곱 알, 여덟번째 두구니에는 여덟 알, 아홉번째 두구니에는 아홉 알, 열번째 두구니에는 열 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닭알은 모두 몇 알이나 되겠습니까?》

강 선생의 말이 떨어지자 원수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원수님은 강 선생이 문제를 낼 때 벌써 앞질러 가면서 속으로 계산을 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님이 손을 든 얼마 후에 몇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내 놓고 폈다 까부렸다 하면서 중얼중얼 계산 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아리숭해서 계산을 할 수 없는 모양인지 머리만 좌우로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슬그머니 종이와 연필을 꺼내 가지고 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손을 든 김 성주 대답하시오.》

《네, 쉰 다섯 개 입니다.》

《맞았습니다.》

손을 들었던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하였습니다.

《또 한 문제를 맞추어 보시오. 복숭아 나무에 참새 열 마리가 앉았는데 포수가 와서 총을 놓아 일곱 마리를 떨어 뜨렸습니다. 복숭아 나무에는 참새가 몇 마리 남아 있겠습니까?》

《네!》

《네!》

강 선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의 손이 올라 갔습니다. 강 선생은 앞 줄에 앉은 한 학생을 지적했습니다.

《네! 세 마리 남았습니다.》

《맞았습니다.》

하고 일제히 대답하였습니다.

이때에 원수님만이 《네!》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둥굴하여 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어라고 저희들끼리 쑤근덕거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강 선생은 싱글벙글 웃으며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이상하다는 눈으로 원수님과 선생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시오.》

《네! 모두 날아 나서 복숭아 나무에는 한 마리도 없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총 소리에 모두 도망했을 것이 아닙니까.》

강 선생이 이렇게 말하자 아이들은 일제히 원수님을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야! 그걸 몰랐댔구나!》하며 뒤통수를 쓱쓱 긁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날 산술 시간에는 첫 페지에 있는 계산 문제 풀이로 끝마치게 되였습니다.

강 선생은 5 학년 학생들에게 계산 문제를 내 주고는 4 학년 학생들에게로 갔습니다. 4 학년은 조선어 시간이였습니다. 원수님은 남 먼저 계산 문제를 다 풀어 놓고는 4 학년 학생들에게 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원수님에게는 그것이 모두 새로운 것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이 습자 시간이여서 5 학년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방안에서 떠들석했습니다. 점심을 싸 가지고 온 바리 뚜껑에 물을 길어 가지고 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입에 물을 물어 가지고 들어 오다가 다른 아이가 간지름을 태우는 바람에 웃음이 터져 나와 그

아이 얼굴에 물'소나기를 끼치고는 욱신각신 다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먹을 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습자지를 가져 오지 못해서 이 아이 저 아이 앞으로 돌아다니며 습자지를 한 장만 꾸어 달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먹을 갈다가 책상 우에 먹물을 쏟아뜨리고 어쩔 줄 모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팔목에다 팔뚝 시계를 그려 놓고 우쭐렁거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알리는 종 소리가 울리자 담임 선생이 들어 왔습니다. 습자 시간은 시작되였습니다.

원수님은 먹을 갈 때부터 아주 침착하였습니다. 손이나 책상 우에 먹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원수님은 습자 교과서를 펴 놓고 본보기를 한동안 들여다 보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된 후에 붓을 들었습니다. 자세를 똑 바로 한 후에 붓에 먹을 적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팔꿈치를 책상이나 종이에 닿지 않게 성큼 들고 입을 한일'자로 꼭 다문 후에 획을 힘 있게 긋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님의 글씨에는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멋이 있게 쓰누나!》

입에 붓을 물고 먹을 갈고 있던 곁 책상의 아이가 먹 갈던 손을 멈추고 감탄'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원수님 곁으로 우르르 밀려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썼구나!》

《교과서보다두 더 멋있게 썼구나.》

《내가 쓴건 창피해서 내지 못하겠는데.》

《가마니 있어라, 난 한 장 더 써 보아야겠다.》

둘러 서고 있던 아이들의 말이였습니다.

원수님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앞에서 붓 글씨 련습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글을 쓰기 전에 먹 가는 법과 붓 잡는 법을 가르켜 주셨습니다. 글을 쓸 때에는 쓰는 사람의 힘과 정신이 깃들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글 쓰기를 련습하는 것은 글'발이나 곱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수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침착하지 못한 사람이 훌륭한 훈장 밑에서 글씨 공부를 하면 아주 침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원수님에게 글씨를 씨울 때는 마음의 준비가 되여 있는가를 살펴 보고서야 붓을 들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원수님은 어려서부터 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온 정신을 한데 모으고 획 하나를 긋고 점 하나를 적는 데도 있는 정력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글씨 공부를 한 원수님은 중국에 있을 때에도 명필이라고 칭찬을 받았으며 오늘도 첫 솜씨로 아이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원수님은 큰 글씨를 다 써 놓고 그 옆에 학년과 이름을 써 놓았습니다. 먹이 마른 후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담임 선생은 만족한 얼굴로 원수님의 글씨를 오래도록 들여다 보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우에 붉은 잉크로 《갑》(甲)이라고 써 넣었습니다. 원수님이 쓴 글씨는 게시판 맨 첫 자리에 붙였습니다.

× ×

편집부의 말

작년 4 호부터 이번 호까지 14 회에 걸쳐 실어 온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 학교 시절》은 금번 민청 출판사에서 그의 전부를 《노을 비낀 만경봉》이라는 책으로 출판하게 되였으므로 련재를 그만둡니다. 앞으로 발간되는 《노을 비낀 만경봉》을 읽어 주십시오.

민청이 걸어 온 길

김 병 익

지금 전체 소년단원들은 다섯 번째 대회를 맞이하는 민청원 형님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눈부시게 진행되고 있는 보람찬 시기에 열리는 형님들의 다섯 번째 대회는 참말로 뜻 깊은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 밑에 지난 18 년 간 민청원 형님들이 걸어 온 빛나는 승리의 길을 총화하고 형님들 앞에 나선 새로운 혁명 과업을 토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당과 혁명이 민청원 형님들 앞에 요구하는 새롭고 높은 임무와 역할에 알맞게 민주 청년 동맹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번 대회에서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강철 같이 뭉친 형님들의 억센 힘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게 될 것이며 민주 청년 동맹으로부터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서 첫 발 자국을 내딛게 됩니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 받아 창건된 민청은 지난 18 년 간 실로 보람찬 길을 걸어 왔습니다. 형님들이 걸어 온 지난날은 오직 자기를 낳아 길러 준 당과 수령 앞에 무한히 충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온 영광의 나날이였습니다.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에 민청은 당의 가르침 받들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민주 개혁을 실시하는 투쟁에서와 나라의 인민 경제를 복구하며 공화국 북반부에 민주 기지를 튼튼히 다지는 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민청원 형님들이 당과 수령을 무한히 사랑하며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끓어 넘치는 충성심을 남김 없이 발휘한 것은 원쑤 미제와 그 앞잡이 도당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였습니다.

간악한 원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더러운 침략의 발'길을 공화국 북반부에 들여 놓았을 때 민청원 형님들은 《모든 것은 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당의 부름 받들고 마치와 호미와 펜을 총으로 바꾸어 쥐고 원쑤와의 판가리 싸움에로 한사람 같이 달려 나갔습니다.

전선에서 우리의 민청원 형님들은 언제나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가장 어려운 전투의 앞장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3 만～5 만 발의 폭탄과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가렬한 전투 마당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섬이 없이 조국의 고지를 지켜 낸 1,211 고지의 젊은 용사들, 자기의 피 끓는 청춘의 가슴으로 적 화구를 막은 리

수복, 박 원진 영웅들, 민청호 중기 사수 조군실 영웅 형님을 비롯한 수 많은 영웅들과 민청원 형님들의 위훈은 우리 조국의 력사와 함께 길이 빛날 것입니다.

후방에서도 민청원 형님, 누나들은 적들의 무차별 폭격 속에서도 굴함 없이 전선에 더 많은 식량과 무기와 탄약을 보내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의 시기에도 민청원 형님들은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고원, 곡산, 구월산 등 빨찌산에서 싸웠으며 곳곳에서 원쑤와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다》고 떠벌리던 미제 침략자를 때려 눕히고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 냈습니다.

항상 당과 조국과 수령 앞에 충직한 민청원 형님들은 전후 인민 경제를 복구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빛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

민청원 형님들은 언제나 당의 부름 받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의 앞장에서 당의 후비대답게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개조가 진행되는 시기에도 민청원 형님들은 모든 청년들의 앞장에 서서 당 정책을 해설하여 개인 농민들과 상공업자들을 협동 조합에 묶어 세우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민청원 형님들은 당이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불렀을 때 청년 개발자의 영예를 안고 송남 청년 탄광으로,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장으로, 바다의 정복자로 앞을 다투어 달려 나갔습니다.

민청원 형님들은 빈 터에다 천막을 치고 없는 것은 찾아 내고 적은 것은 만들어 내면서 송남 탄광을 개발하였고 독로강 발전소를 맡아 건설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민주 수도 평양 건설 로력의 80%를 맡은 민청원 형님들과 청년들은 자기들의 온갖 지혜와 힘을 다하여 세계에 알려진 《평양 속도》의 기적을 낳았으며 해주—하성간의 광궤 철도 공사에 나선 민청원 형님들은 일제 때 같으면 2 년은 실히 걸려야 한다는 공사를 단 75 일 동안에 해 내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 밖에도 비날론 공장에 동원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세계 1 등급의 웅장한 비날론 공장을 불과 1 년 남짓한 사이에 건설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는 《비날론 속도》를 낳았으며 룡성 기계 공장 주 성일 2중천리마 작업반 형님들을 비롯한 락원, 덕천, 기양의 민청원 형님들과 청년들은 지난날은 우리 나라에서 만들 엄두도 못 내던 8 메터 타닝반, 3천 톤 프레스, 승리 58형 화물자동차, 천리마호 뜨락또르 등을 만들어 내는 데 빛나는 위훈을 떨쳤습니다. 오늘 민청원 형님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의 고귀한 피땀으로 이룩된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 성과와 사회주의 조국을 그 어떠한 원쑤도 얼씬 못 하게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조국의 방선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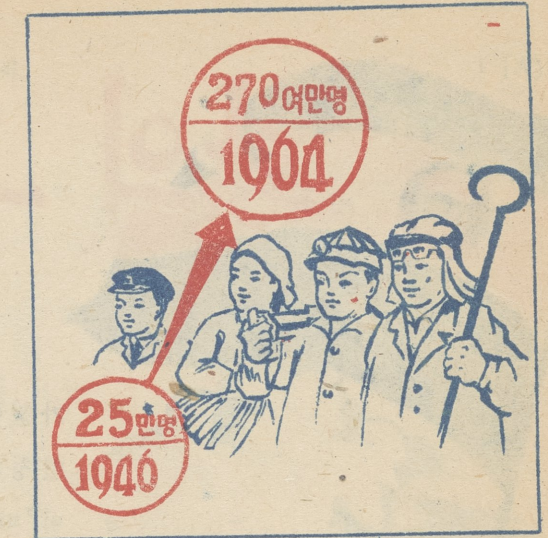
이처럼 당에 충직한 민청원형님들은 언제 어떠한 곳에서 그 어떤 풍파가 휘몰아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김 일성 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튼튼히 지키였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자기의 온갖 충성을 바쳐 왔습니다.

이 모든 투쟁을 통하여 민청은 튼튼히 단련되였으며 창건 당시 25만 명으로부터 오늘은 270여만의 청년들을 묶어 세운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방조자로 자라 났습니다. 그리하여 민청 대렬 속에서는 수많은 로동당원들과 나라의 일'군들이 자라났습니다.

오늘도 민청원 형님, 누나들은 당이 맡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뛰여 들어 그를 끝까지 해 낼 결의에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민청원 형님, 누나들은 지, 덕, 체가 갖추어진 즉 지식 있고 도덕 품성이 바르고 몸이 튼튼한 일'군으로 자라라는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혁명 전통 학습과 공산주의 교양을 꾸준히 쌓아 자기 대오를 더욱 튼튼히 하며 당이 준 새롭고 높은 임무를 해낼 준비를 훌륭히 갖추면서 자기들의 대회를 보람차게 맞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민주 청년 동맹이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되면 형님들의 조직은 더욱 전투적인 대오로 강화될 것이며 따라서 형님들 앞에는 더 무겁고 보람찬 혁명 과업이 차례질 것입니다.

지난날 당과 수령의 가르침을 따라 억센 대오로 단련된 민청원 형님들은 앞으로 그 어떤 무겁고 높은 혁명 임무가 차례진다 하여도 그를 용감히 해 내고야 말 것입니다.

소년단은 민청의 교대자입니다. 당은 민청원 형님들에게 우리 소년단을 직접 지도할 위임을 주었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민청원 형님들의 뒤를 따라서 소년단 조직에서 민청원으로 자라 장차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되는 것을 더 없는 영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소년단원들은 민청 형님들의 다섯 번째 대회를 맞으며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더욱 열심히 참가하는 한편 소년단 조직을 더욱 튼튼히 하며 《모범 분단》, 《모범 소년단》 쟁취 운동을 더욱 강화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하기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대회를 맞는 민청원 형님들처럼 앞으로도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혁명의 붉은 전사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나아갈 것입니다.

(시)

당의 후비대로!

김 학 연

가없이 푸른 저 하늘에
민청기 펄펄 날립니다.
비'바람을 헤쳐 온
용감한 수리개의 날개처럼
불'구름을 이겨낸
영광의 근위기,, 근위기처럼.

그 기'발 우러러
나는 지금 걸음 멈추고 섰습니다.
아, 기'발의 펄럭임 소리
나의 귀에 가까이,
나의 가슴 가까이
속사겨 줍니다…

(내 일찌기
백두산에서 태여났노라,
공청원들의 뜨거운 숨'결
나의 기폭에 살아 있노라,
나의 푸른 날개
원수님 품속에 자라
조국의 하늘 땅을
거침없이 날았노라,
로동당의 후비대로
폭풍을 헤치며 날았노라!)

하늘에 휘날리는 저 기'발에서
나는 또 봅니다.
조국의 대지를 바라 보는
리 수복 영웅의 얼굴이며,
고향의 바다를 굽어 보는
조 군실 영웅의 얼굴이며,
공산주의 미래를 가까이 그려 보는
리 병모 영웅의 얼굴이며…

그 불타는 눈'길들은 마치
내 걸어 가는 길과
내 바라 보는 앞날과
내 가슴에 붉은 넥타이까지를
눈여겨 보는듯…

나는 맹세합니다.
민청기 날리며 날리며
형님들이 쌓아 올린
그 자랑찬 위훈 앞에…
나는 맹세합니다.
이제 사. 로. 청의 붉은기 날리며
새 결심 새 각오로
가슴 불태우는 형님들과 함께

당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리라,
당을 따라
영원히 나아가리라,
당의 후비대로
굳세게 준비하리라!

«다섯 새'별»

평양—신의주간 전기 철도 공사장에서 있은 일입니다.

어느 날 6 대대 2 중대 형님들이 한창 일하고 있는 니서—만성간의 건설장에 인민군대 아저씨들과 비슷한 옷차림들을 한 다섯 명의 민청원 형님들이 나타났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함께 일하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렇게만 말하고는 어느 새 저마다 척척 흙을 파 제끼는 것이였습니다.

《?…》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형님들은 의아한 눈'길로 이 낯선 형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이들은 내각 지질 총국 물리 탐사대 물리 3반 초급 민청 단체의 민청원 형님들이였습니다.

그럼 형님들은 어떻게 되여 여기까지 왔을가요?

이곳으로 오게 된 사정

형님들이 전기 철도 건설장으로 달려 오기 며칠 전이였습니다.

《에 답답하군, 이런 때 휴가를 받으라니 참.》 민청 5 차 대회를 앞두고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보내는 민청 중앙 위원회의 호소문을 학습하던 전 화일 형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은 물리 탐사대 물리 3반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입니다.

형님은 지난 한 해동안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땅속의 보물을 찾아 가파로운 벼랑'길은 얼마나 톺아 오르고 인적 드문 처녀림은 얼마나 헤쳤는지 모릅니다.

형님들의 일터는 온 조국 땅입니다.

화일 형님은 언제나 이 일이 즐겁고 자랑스럽습니다. 때문에 형님은 잠시도 전기 탐사기를 놓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님더러 이지음 휴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금년엔 휴가를 받소, 건강도 돌봐야지.》 당 위원장 선생님의 이런 말에 형님은 얼결에 그저 《네!》하고 대답하여 버렸습니다.

형님의 눈 앞엔 불연듯 평양—신의주간 전기 철도 공사장이 떠올랐습니다.

《휴가 기간을 전기 철도 건설에 바치자!》 민청 5 차 대회를 앞두고 무엇인가 당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해 오던 형님이였습니다.

이튿날 형님은 합홍 정거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화일 형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초급 민청 단체에 있는 민청원 오 정일, 최 홍구, 최 창일, 김 철웅 형님들이 또 려행 차비를 하고 성큼성큼 개찰구를 빠져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동무들, 어딜 가오?》

《민청 위원장 동무, 너무 시치밀 떼지 마시우. 함께 갑시다.》

이렇게 되여 형님들은 함께 이곳으로 오게 되였습니다.

민청원의 붉은 마음

화일 형님네가 6 대대 지휘부를 찾아 보고 작업장 숙소에 다달았을 때는 방금 새'별이 진 새벽이였습니다.

우리는 영예로운 전기 철도 건설자
로동당 부름 따라 앞장서 나섰다…

전기 철도 건설자의 노래를 부르며 벌써 이곳 청년 건설자들은 현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대가 나가고 중대가 나갈 때마다 《오늘도 1 중대 1 소대 〈청년 번개 돌격대〉 동무들은 200~300 프로로 책임량을 해 내리라고 믿습니다.》라는 방송원 누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화일 형님네는 우선 1 중대 1 소대의 숙영소를 찾아 갔습니다.

침실에 들어 서니 두 청년이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동무의 몫까지 다할테니 오늘은 넘려 말고 쉬오.》

《분대장 동무, 일 없어오. 민청원이 요만한 감기에 지겠어요.》

한 젊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승강대를 뛰여 내리는 분대장 형님의 팔 소매를 잡아 당깁니다.

《동무, 일 없기는 뭐가 일없소? 보오, 코'물을 흘리면서.》 분대장은 화가 난 듯 돌아 서더니 그 젊은이에게 손'수건을 내줍니다. 그는 쑥스러운지 힝 하고 돌아서더니 기어이 분대장을 따라 갑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정주역 선로반에서 온 리 임준이란 민청원 형님인데 전기 철도 공사장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바쳐 일해서 꼭 조선 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고 이곳으로 지원해 온 것이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 어떻게 잠시인들 방안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무들! 빨리 배낭을 벗어 놓고 현장으로 나가자구.》

800 리 먼 길을 달려 오느라고 지친 몸들이였지만 형님들은 조금도 쉴 생각을 안하고 건설자들의 뒤를 따라 이 새벽 현장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새벽녘의 우등'불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앞장서 일하는 전기 철도 건설장은 날마다 불'도가니처럼 끓었습니다. 언땅을 파헤치고 흙을 나르는 민청원 형님들의 온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따찌까에 량껏 흙을 퍼 담아도 써원치 않아 발로 꽝꽝 누르고야 밀고 나갑니다.

이렇게 일하고도 화일 형님네는 저녁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훌륭히 할 것인가를 토론하였습니다. 자기 직장에 돌아 가 할 다음 달 계획도 의논하고 학습도 꾸준히 하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사이에는 만성역 대합실 청소까지 해 줍니다.

비록 다섯 명 뿐이지만 이들은 직장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도 하고 학습도 하면서 민청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하긴 이들은 언제 어드 곳에 가나 이렇게 생활한답니다.

1 소대 민청원 형님들은 잠시 지원해 온 이 형님들에게 좀 쉬운 일을 맡기려고 여러 가지로 애썼지만 그것은 언제나 허사였습니다.

1 소대 형님들은 한 번은 기상 구령도 치지 않고 화일 형님네만 남겨 놓고 저희들끼리 소곤소곤 깨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 일이겠습니까! 벌써 작업 현장에는 활활 우등'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화일 형님네란 것을 안 1 소대 형님들은 모두 주춤 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화일 형님네는 벌써 한바탕 일을 해 제끼고 마침 우등'불'가에 모여 앉아 공청원 김 충진 형님에 대한 회상기 모임을 가지고 있는 참이였습니다.

형님들은 힘을 합쳐 우등'불 빛으로 눈앞을 밝히며 흙을 파헤쳐 나갔습니다.

《새'별이 뜬다!》 누군가의 기쁨에 넘친 웨침 소리에 형님들은 동 쪽 산넘어에 반짝반짝 뜨는 새'별을 보았습니다.

《동무들은 저 새'별보다 더 부지런한 〈다섯 새'별〉이오.》하는 소대장 형님의 말에 모두 그렇다는 듯 다섯 청년의 자랑찬 얼굴을 둘러 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여 온 련대에는 《다섯 새'별》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화일 형님네가 휴가 기일이 다되여 떠나는 날 이들을 바래워 대대 지휘부 간부들과 많은 민청원 형님들이 정거장에 나왔습니다. 화일 형님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동무들, 5월에 다시 만납시다. 우린 그 때까지 기어이 2중 천리마 작업반이 되겠소.》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들을 실은 렬차가 달리는 이 철'길 우로 오래지 않아 《붉은 기》호 전기 기관차가 기적 소리도 경쾌하게 달릴 것입니다.

그때 이 길 우로 려행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조선 청년들은 모두다 영웅들이다!) 라고.

아름다운 소년들

—함흥시 회상 중학교 단 제 11 분단 1 반에서—

본사 기자 김 준규　　　그림 김 성엽

이른 아침이였다.

함흥 거리의 어느 한 빠스 정류소에서 손님들은 한 쪽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주고 받고 있었다.

《저 애들이 나오는 걸 보니 아직 늦진 않았군.》

《참, 기특한 애들이거든…》

손님들이 바라보는 쪽에서는 세 바퀴차가 가까와 오고 있었다. 두 소년단원이 세바퀴차를 밀고 있었다.

이들은 누구들이며 어디로 가는 것일가? 어찌하여 사람들은 이들에게 그처럼 미더운 눈'길을 보내는 것일가?

이들 회상 중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이 영예 군인 고 수은 아저씨를 돕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두 해 전 어느 겨울 날이였다. 이 학교 11 분단 1 반 반장인 홍 의찬 동무는 여느 때보다 일찌기 학교 길에 나섰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운 바람이 눈보라를 몰아 왔다.

털모자를 푹 내려 쓰고 달려 가던 의찬이는 한 자리에서 흠칫 걸음을 멈추었다.

한 영예 군인 아저씨가 세바퀴차에 앉아서 제손으로 바퀴를 돌리며 어디론가 가시는 것이였다.(이 추운 날에 어디로 가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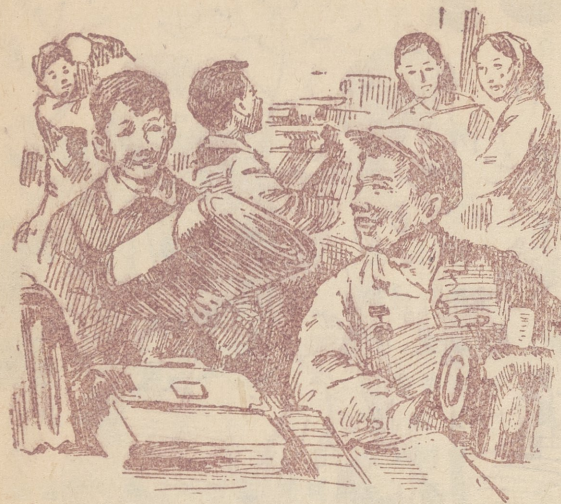
의찬이는 그냥 지날 수 없었다. 아저씨를 도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아저씨, 함께 갑시다.》

《애야, 학교가 늦겠다.》 아저씨는 그냥 말리였다.

그러나 의찬이는 세바퀴차를 밀고 아저씨가 일하시는 영예 군인 공장에까지 갔다.

그 날 공부가 끝난 후 의찬이는 반 동무들과 함께 영예 군인 아저씨를 도와 드리자고 의논하였다.

그런데 일은 딱하게 되였다. 이튿날 아침에 수은 아저씨네 집 가까이에 이르니

벌써 5 분단의 한 동춘, 차 영자 동무들이 아저씨가 탄 세바퀴차를 밀고 나오고 있였다.

동춘이네는 벌써 며칠 전부터 영예 군인 아저씨를 돕고 있었다. 그런데 수은 아저씨는 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아예 어제 아침에는 여느 날보다 일찌기 집을 나섰던 것이다.

이렇게 되여 두 반 동무들은 서로 번갈아 영예 군인 아저씨를 돕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아침에 출근 할 때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직장에 찾아 가서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아저씨를 모시고 온다. 분세포 위원장인 아저씨는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할 때도 있었다.

이런 때에는 공장의 휴계실에서 그날 배운 과목을 공부하며 아저씨를 기다린다.

한 번은 아저씨의 안내로 가방 만드는 직장에 들어 가 보았다. 아이들은 직장에 들어 서자 마자 환성을 올렸다. 아저씨들은 갖가지 고운 색갈의 멋 있는 비닐 가방들을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잠시 직장의 이곳 저곳을 두리번 두리번 살펴 보았다. 그 어느 기대에서나 영예 군인 아저씨들은 당의 부름 받들고 보기 좋고 쓰기 좋은 가방을 만들기 위해 힘 쓰고 있었다.

《야, 이건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과 꼭 같은 거구나.》 아이들은 새파란 비닐 가방을 하나씩 들어 보며 좋아하였다.

《마음에 드니? 우리 민청원들이 민청 5 차 대회에 드리는 로력적 선물로 만드는 거란다. 수은 아저씨가 우릴 많아 도와 줘. 아저씬 너희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여간만 애쓰는 게 아니란다.》 한 민청원 누나가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의찬이는 가방을 들고 척척 걸어 보며 생각하였다.

(수은 아저씬 그래서 늘 우리들의 가방을 유심히 만져 보시댔구나! 아저씬 얼마나 훌륭한 분이실가…)

의찬이의 눈 앞에는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 원쑤와 용감히 싸우던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저씨는 원쑤놈들과 싸우다 부상 당한 그 불편한 몸을 가지시고도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 애쓰고 계시지 않는가.)

《얘들아, 우리 아저씨들의 일'손을 도와 드리자.》

의찬이의 힘 있는 웨침에 반 동무들은 아저씨들을 도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다 만든 가방을 나르기도 하고, 실타래도 풀고, 비닐을 날라다 아저씨들의 기대 앞에 놓아 드리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기특한 마음에 감동된 아저씨들은 부쩍부쩍 기운을 내여 일하시였다. 영예 군인 아저씨들의 이러한 모습에 감동된 반 동무들은(우리도 아저씨들처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소년단원이 되자. 아저씨들 처럼 계속 꽃을 피우자.)하고 마음 다졌다.

의찬이네는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더욱 잘 해 나가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영예 군인 아저씨들을 도왔다.

저녁이면 직장에 찾아 가 그 전처럼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 빠른 시간에 더 멋있는 가방을 많이 만들도록 영예 군인 아저씨들의 일'손을 도왔다.

일요일이면 수은 아저씨네 집'일도 돕고 인민반 2 학년에 다니는 아저씨의 아들 용훈이의 학습도 도와 최우등생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기특한 아이들입니까. 벌써 두 해 째지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 애들을 보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지요.》하며 한 손님이 바삐 가는 세바퀴차를 바라 보는 것이였다.

의찬이네 반 동무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된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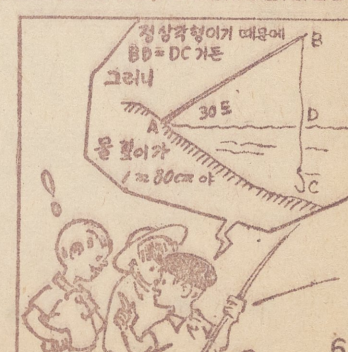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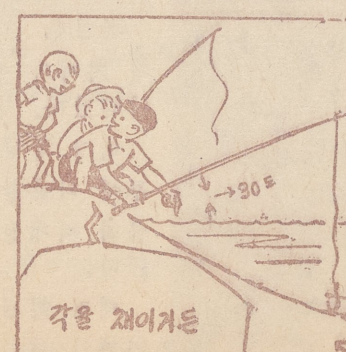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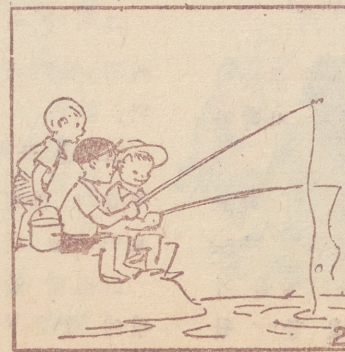
얼마나 미더운 조국의 꽃봉오리들인가!

증기의 힘

동무들은 물 한 ℓ를 끓일 때 나오는 증기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 동무들이 그 힘을 안다면 놀랄 것입니다.

한 ℓ의 물을 끓일 때 나오는 증기의 힘으로는 900 kg의 짐을 10층 아빠트 우에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구 표면에서는 51 km^3의 물이 증발(그중 45 km^3는 바다에서 증발 한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연의 힘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대로 없어지는 것일가요.

(만화)

—공화국 영웅 염 태경 형님에 대한 이야기—

1951년 11월…

1,211 고지와 가칠봉 사이에 있는 동남쪽 무명 고지를 차지한 적들은 1,211 고지 마저 빼앗아 보려고 하루에도 수천발의 포탄과 폭탄을 퍼부으면서 미친듯이 날뛰였다.

그러니 놈들의 손에 들어 간 이 무명고지를 도로 빼앗는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전투 과업이였다.

1,211 고지를 지키고 있던 분대장 염태경 형님은 부대 지휘부로부터 이 무명고지를 습격할 전투 임무를 받았다.

4일 밤, 태경 형님을 중심으로하여 11 명으로 조직된 습격조는 동남 쪽 무명고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안개가 자욱히 끼더니 보슬보슬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먹물을 뿌려 놓은듯한 캄캄한 밤이여서 2 메터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

습격조가 무명 고지의 기슭에 다달았을 때였다.

어디선가 《핫—핫》하고 가쁘게 숨 쉬는듯한 수상한 소리가 들려 왔다. 형님은 귀에 손바닥을 대고 잠시 숨을 죽이였다.

분명 사람의 가쁜 숨'소리였다.

습격조원들은 모두 몸을 숨기고 잠시 숨을 죽이였다.

1 초, 2 초…

긴장한 시간이 흘러 갔다. 숨'소리는 점점 가까와 왔다. 잠시 후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틀림 없는 적병이였다.

태경 형님은 그놈을 사로잡아 습격 전투에 리용할 생각이 났다. 습격조원들은 아직 적정을 세밀히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태경 형님은 적병이 2~3 메터 앞까지 가까이 왔을 때 벌떡 일어 서며 그 놈의 가슴팍에 기관단총을 들이댔다.

겁을 집어 먹은 그 놈은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다. 그놈은 금방 지은 보리밥을 쇠통에 넣어 등에 지고 고지로 올라가는 《국방군》 취사병이였다.

캄캄한 밤이여서 길을 잃고 헤매다 습격조원들과 마주치게 되였던 것이다.

습격조원들은 그놈 한테서 통행 암호와 특별 암호를 알아 내였다.

(인제는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태경 형님의 머리에는 문뜩 어느 날인가 군 부대장 최 현 동지가 자기들에게 들려 주던 이야기가 떠 올랐다.

그것은 1939년 6월, 항일 빨찌산들의 한 부대가 왜군 《토벌대》로 가장하여 안도현 얼허호 부근 부락에 도사리고 있는 원쑤들을 모조리 생포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때 항일 빨찌산들은 《토벌대》처럼 행군 대렬을 짓고 왜군 복장에 왜말을 써가며 일부러 오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며 적진 속에 들어 가 적들을 감쪽 같이 속아 넘기였다는 것이였다.

(나도 그처럼 령활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리라!)

그래서 적의 취사병으로 가장한 형님은 그놈이 하던 짓대로 일부러 가쁜 숨'소리를 내면서 오솔'길을 따라 고지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병필 형님과 영석 형님이 그의 뒤를 따랐다.

얼마쯤 올라 갔을 때였다.

《누구야? 섯!섯!》하고 적 보초병놈이 격발기를 절걱거리며 다급히 소리쳤다.

《나야, 나…》

《군호!》

《동해.》

형님은 그냥 적 보초병 앞으로 다가 가면서 태연히 대답했다.

《특별 군호!》 보초병 놈은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모양인지 재차 소리쳤다.

위험한 순간이였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보초병 놈에게 더 의심을 살 수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적의 약점을 유리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형님은 아까 취사병 놈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던 것을 퍼뜩 생각 했다.

그래서 《바다.》하고 특별 군호를 댄 다음 《밥, 밥을 가지고 온 당꼬.》하며 경상도 사투리로 소리쳤다. 이러는 사이에 형님은 적 보초병 놈의 코앞까지 다가 갔다.

이 때 병필 형님과 영석 형님이 잽싸게 달려 들어 그놈의 뒤'덜미를 움켜 쥐고 입을 틀어 막았다. 습격조원 형님들은 그놈의 가슴팍에 기관단총을 들이 대고 고지의 적정을 물었다.

그런데 보초병 놈은 헛 소리만 쥐여 칠뿐 바른 대로 말하지 않았다. 더 지체 할 수가 없었다. 태경 형님은 날이 시퍼렇게 선 단도를 그놈의 모가지에 대고 빨리 대답하라고 위협했다.

그제서야 자라처럼 모가지를 움츠리고 벌벌 떨던 그놈은 목숨만 살려 달라고 애

원하면서 형님들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습격조원 형님들은 그놈의 입을 통하여 적들은 날이 밝자 1,211 고지를 공격 할 목적으로 무명 고지에 군대를 더 불구었다는 것, 그놈들은 먼 곳에서 행군해 왔기 때문에 모두 지쳐서 세상 모르고 잠들고 있다는 것 등을 알아 냈다.

그리고 병실, 천막, 중기 화'점 등의 위치를 손'금 보듯 알 수 있게 되였다.

이제 30 분만 있으면 놈들의 보초 교대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행동해야 하였다.

태경 형님은 조원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전투 조직을 했다. 습격조는 3 개조로 나누었다.

태경 형님이 책임진 습격조원들은 고지 오른 쪽의 경사지에 도사리고 있는 화구를, 유 병기 형님이 책임진 조원들은 고지 왼 쪽의 화구를 까부시며, 리 병필 형님이 책임진 조원들은 놈들의 병실 천막을 들이 치기로 했다.

형님들은 제각기 맡은 방향으로 살금살금 올라 갔다. 고지 우에는 여기 저기서 적들이 코고는 소리만 날뿐 쥐죽은듯 고요했다. 고지 오른 쪽 경사지로 살금살금 기여 적 중기 화구 앞까지 바싹 다가간 태경 형님은 그 속에서 적병 두 놈이 중기 손잡이를 틀어 쥔채 끄떡끄떡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놈들, 죽어 봐라!)

태경 형님은 치밀어 오르는 적분을 참지 못하면서 밉쌀스러운 적 중기 화구에 련거퍼 반전차 수류탄을 집어 넣었다.

고지를 들었다 놓는 듯한 굉장한 폭발 소리와 함께 적 화점은 하늘로 날아났다. 이 폭발 소리는 형님들의 습격 신호이기도 했다.

병필 형님은 날쌔게 돌아 가면서 매 천막 속에 수류탄을 집어 넣었다. 정신 없이 잠자고 있던 적들은 갑자기 수류탄 벼락을 얻어 맞고 수 없이 뻗드러졌다. 살아 남은 놈들은 아우성 치며 천막 안에서 기여 나오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병필 형님은 《네놈들이 빠져 나갈 구멍은 없다. 복수의 불벼락을 받아라!》라고 웨치면서 기관단총을 휘둘렀다. 불의에 들씌워지는 총탄에 적들은 찍은 바자처럼 무더기로 쓰러졌다.

고지는 일대 수라장으로 되였다. 악질적인 몇몇 놈들은 맞불질을 해 왔다.

그렇지만 캄캄한 밤이여서 습격조원 형님들의 위치를 찾아 내지 못한 놈들은 눈 먼 총질을 마구하여 저희들 끼리 총질을 하다가 죽어 넘어지는 놈도 있었다. 어떤 놈들은 정신 없이 뛰여 다니다가 제 놈들의 손으로 묻어 놓은 지뢰원에 들어 비명을 올리며 꺼꾸러졌다.

고지 우의 놈들이 거의 몰살 당하였을 때였다. 가칠봉으로 향한 엄페부에서 40여 명의 적병놈들이 뛰쳐 나와 뺑소니를 치려고 허우적거렸다.

미리 놈들의 길을 막고 있던 영석 형님은 《이놈들아, 너희들은 독 안에 든 쥐다.》라고 웨치면서 놈들의 앞 가슴에 불벼락을 안겼다. 놈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거꾸러졌다.

동이 훤히 터 왔다.

태경 형님은 1,211 고지 상공을 향해 신호총을 쐈다. 고지 점령을 부대에 알리는 붉은 신호탄이 짙은 안개 속에 포물선을 그으며 올라 갔다.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형님들은 고지가 떠나 갈듯 승리의 환성을 올렸다.

통쾌한 습격 전투는 20 분도 걸리지 않았다. 고지 우에는 놈들의 시체가 한 벌 쭉 깔리였다.

이리하여 주검에 주검을 쌓으면서 무명 고지를 차지했던 원쑤들은 또다시 몰살 당하고 말았다.

이윽고 무명 고지를 지킬 임무를 받은 보병 구분대가 와 닿았다.

중기, 경기, 60 밀리 포 등 전리품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이 산'더미 같았다.

형님들은 서로 그러안고 전투 승리를 축하하였다.

형님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이 맡겨 준 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크나큰 기쁨이 어리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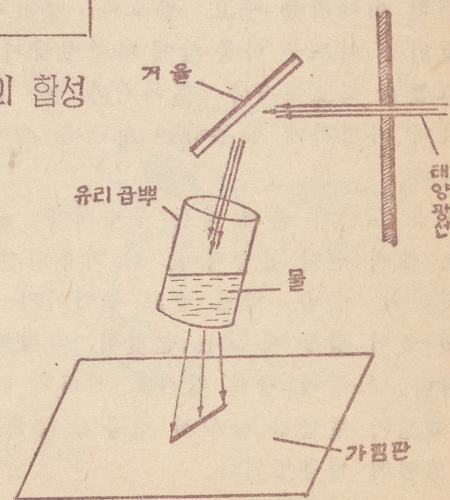
태양 광선의 분산과 색광의 합성

푸리즘 없이 집에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스펙트르를 관찰 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유리 곱뿌에 반쯤 물을 부어 넣고 곱뿌를 약간 경사 지게 한 후 좁은 틈으로 들어 오는 태양 광선을 거울로 반사시켜 곱뿌에 담긴 물 속으로 통과 시키면 곱뿌 밑에 놓인 가림판 우에 태양 광선의 스펙트르를 얻게 된다.

여기에 렌즈를 가지고 그 스펙트르를 한 점에 모으면 (합성) 본래의 태양 광선(백색)을 얻게 된다.

연아 연아! 내 편지 전해 다오

《따쿵, 따쿵…》

어디선가 들리는 미국제 카빙총 소리가 온 마을에 째는듯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 오던 충현이와 문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키 놈들이 또 조선 사람을 쏘아 죽이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충현이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문일아, 너 요새 주의해 길을 다녀라, 미국놈의 지랄이 심하다. 어제는 앞 마을 버들'골에서 길 가던 사람이 미국놈 총에 맞아 죽고 그제는 파주 국민 학교에 다니는 우리 또래의 어린이가 산에서 나무 하다가 가엾이 죽었단다…》

《그래? 난 아직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충현이와 문일이는 어느듯 마을 앞에 다달았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늘 함께 보내며 다정하게 공부하는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는 무렵에야 충현이는 집에 돌아 왔습니다. 다 기우러진 오막살이의 문을 방싯 열고 충현이가 방안에 들어 섰을 때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침에 담배 장사로 거리에 나섰던 형님이 별안간 누워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이게 웬 일이야요? 네 형님!》 그러나 형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숨'결 소리만이 높이 뛰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어깨에선 피가 랑자히 흘러 내렸습니다. 이것을 본 충현이는 아까 그 총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순간 충현이는 미국놈에 대한 증오심이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윽하여 형님은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잃었던 형님의 눈은 점점 바로 잡히더니 그는 충현의 속목을 쥐였습니다. 형님의 손목은 여전히 싸늘하여 충현이는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현아! 미국놈이 길 가던 나를 쏘았다. 죄 없는 나를 쏘았다. 미국놈은 우리의 원쑤다. 충현아 이 원쑤를 꼭 갚아 다오. 그리구 이 것을 부디 아버지에게 전해 달라…》

형님은 조그만한 쪽지를 충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충현네 형제가 그처럼 그리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충현이 아버지는 북조선에 계십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살던 충현이 어머니는 14년 전 충현이를 낳기 위해 어린 충현이의 형님을 데리고 대구에 계시는 외가에 갔다가 그만 아버지와 헤여졌던 것입니다.

형님은 그만 숨'결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피에 젖은 형님의 편지는 충현이의 눈물로 다시 적셔졌습니다.

형님이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충현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형님이 메고 다니던 담배통을 어깨에 걸치고 네거리에 나섰습니다.

한나절이 되도록 담배를 팔려고 애썼으나 겨우 단 두갑 밖에 팔지 못 하였습니다. 눈보라는 치고 차거운 바람은 충현이의 뺨을 갈겼습니다. 몸은 점점 얼어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길'가에서 떠는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충현이는 하는 수 없이 담배통을 메고 문일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조선을 잊지 말자

방안에선 낯모를 청년 한 분이 앉아서 무엇인가 속삭이고 있다가 충현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뚝 멈추었습니다.

《외삼촌!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저의 동무 충현이예요. 충현이 아버지는 전쟁 시기에 헤여져 지금 북조선에 계신답니다. 어서 북조선 이야기를…》

문일의 외삼촌은 늘 북반부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북반부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문일아, 이제는 농촌 이야기를 그만하고 어린이들의 생활을 이야기 해 주마, 좋지?》

《어서 하세요.》

《평양에 가면 장대'재라는 산 우에 13층 높이로 지은 큰 집이 있다. 이 집이 바로 학생 소년 궁전이란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어린이들이 이곳에 와서 실험도 하고, 책도 읽고, 춤도 추고, 롱구도 한단다. 문일이 너희들도 그런 궁전에 가 봤으면 좋겠지?》

《야! 북조선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가! 우리도 한번 가 보았으면 원이 없겠네…》

문일이는 부러운 듯이 혼자'말을 하였습니다.

북반부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시는 충현이의 생각은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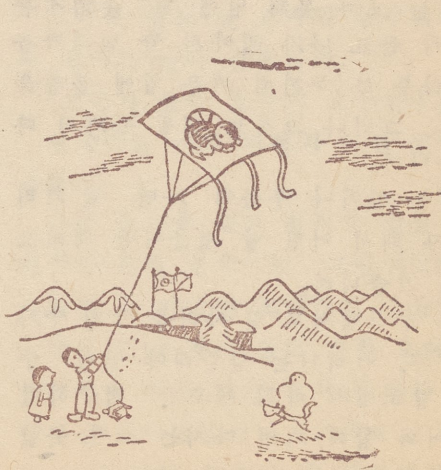
《문일이 외삼촌! 우리는 왜 거기에 갈 수 없습니까?》

《미국놈이 분계선을 가로 막아 서고 있다. 양키놈을 이 땅에서 내 쫓으면 갈 수 있지.》

《편지라도 주고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충현이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하여 량볼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날 밤 충현이는 비상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분계선이 가로 막혀 아버지를 만날 수 없으나 형님과 자기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꼭 아버지께서 받아 보시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연을 큼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연 앞면에는 자기가 할아버지에게 인사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곱게 오려 붙이고 뒤'면에는 그토록 아버지에게 보내지 못한 형님의 피눈물 젖은 편지를 붙였습니다.

새 날이 밝았습니다. 충현이가 북으로 북으로 길을 떠난 지도 며칠, 저 멀리 분계선이 바라 보이는 어느 산 꼭대기에 그는 다달았습니다. 정성 담아 만든 연은 실오리를 따라 하늘 높이 떠 올랐습니다.

"이북에 계신 할아버지께 세배 해야지"

조충현 그림

10 메터, 20 메터, 50 메터…

《할아버지! 아버지! 충현이의 인사를 받으세요…》

충현이는 목청껏 웨쳤습니다. 실토리에 감긴 실이 다 풀릴 때까지 충현이는 연을 풀어 놓았습니다. 드디어 충현이의 손끝에서 실이 떨어졌습니다. (연아 연아! 부디 내마음 전해 다오.) 충현이의 애타는 웨침과 함께 연은 멀리 북녘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고…

불쌍한 정윤이의 편지

서울시 봉래 《국민 학교》 1 학년생인 김 정윤네 집은 몹씨 가난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집인데 어머니에게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쌀 살 돈이 없어서 정윤네 가족은 굶기가 일수였습니다.

먹지 못해 쓰러진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미여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보다 못해 입던 헌 옷가지들을 시장에 들고 나가 팔아서 쌀 몇되박을 사다가 하루 한 두끼씩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안가서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행여나 부산에 가면 일'거리가 생길가 해서 어린 딸 정윤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할래야 일할 수가 없는 남조선의 사회 제도를 저주하면서 정윤이와 함께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할 죽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정윤이는 이제 눈을 감으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동무들과 선생님이 그리워졌습니다. 정윤이는 죽음을 앞두고 부산에서 자기 학급 동무들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 ×

우리 학급반 동무들 다 같이 보세요.

나는 가난한 집 딸이예요. 아빠는 없고 엄마가 돈을 벌어서 사는 집이예요. 쌀이 없어서 아침을 못 먹으면 나는 안 우는데 오빠는 배 고프다면서 짜증을 부렸어요. 엄마는 쌀 살 돈이 없어 엄마 옷을 팔았어요.

엄마는 엎드려서 울었어요. 엄마가 불쌍해서 나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를 따라 부산에 왔어요. 오빠는 외할머니하고 집에 있어요.

엄만 시골 구경시켜 준댔어요. 용두산 비둘기도 보고 배도 보고 시장에 가서 《쉐터》 (털실이나 기타 실로 뜨거나 편직으로 짠 겉에 입는 웃저고리) 짤 것 있느냐고도 물어 봤어요.

부산에서도 일'감이 없대요.

밥 한 그릇 사서 둘이서 노나 먹고 했어요.

살'길 없어 한탄하는 정윤이와 그의 어머니
(남조선 신문《부산 일보》에서)

우리 엄마는 그 전엔 안 울었는데 요새는 울기만해요.

엄마는 부산 올 때 엄마 옷을 팔아 쌀 한말하구 편탄 한짐 사서 집에 두고 왔어요. 《집에 쌀도 떨어졌겠다. 할머니랑 오빠랑 굶고 있을텐데…》하고 엄마는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요.

엄마는 나보고 같이 죽자고 했어요. 엄마가 없으면 거지가 된다고요.

집에서 나올 때 약을 사왔대요.

엄마는 돈'벌이 다니느라고 한 번도 나하고 오빠 손잡고 구경도 못 갔어요.

이 번엔 엄마하고 같이 다니게 되여 좋아했더니 자꾸만 죽자고 하잖아요.

난 엄마하고 같이 죽으면 선생님도 동무들도 못 보겠네요.

동무들 안녕—

김 정윤 올림

이 편지는 남조선 신문 《부산 일보》에 실렸습니다.

정윤이가 이 편지를 쓴 그 날 밤 그의 어머니는 정윤이와 함께 독약을 먹고 같이 자살 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윤이가 《엄마 죽지 말자.》고 너무나 애타게 달래는 바람에 어머니는 정윤이를 잠재우고 혼자서 독약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정윤이가 쓴 짧은 이 편지의 사연을 통하여서도 남조선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을 이처럼 불행에로 몰아 넣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쓸어 버리기 위해서 모두가 일어나 한 사람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국수

서울의 변두리 성동구 운봉동에는 오영숙이라는 소녀가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네 집은 몹시 가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마저 덜컥 앓아 눕게 되였습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앓는 어머니에게 따끈한 미움 한 그릇 끓여 대접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오빠만 괴뢰군에 끌려 가지 않았어도 혼자서 이렇게 안타깝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제대라도 되여 왔으면 얼마나 좋을가.)

영숙이는 오빠만 계셔도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머니에게 약도 사 드리고 맛나는 음식도 구해다 들이면 어머니의 병을 빨리 고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오빠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의 동무께서 한장의 편지가 날아 왔습니다.

(오빠가 돌아 오는가 보구나!)

영숙이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읽던 영숙이는 그만 《앗》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하나 밖에 없던 영환 오빠가 장교놈들에게 아무 리유 없이 몰매를 맞고 죽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돌아 오면 집안 형편이 좀 펴이리라고 희망

을 걸었던 오빠가 돌아 가셨으니 그만 눈앞이 캄캄했졌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앓던 어머니는 이 소식을 알자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간 외사촌 오빠가 준 돈 100원 (비누 한개 값이 130원이다.)과 앓는 영숙의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아서 보태 준 50원으로 어머니를 대접해 왔는데 그것마저 또 떨어져 인제는 정말 죽엄의 막다른 골목에 가 다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음 한 목음 못 잡수시니 이제는 정신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습니다. 영숙이는 가슴이 터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미음이라도 쑤어 드릴가?) 생각하다 못해 그는 자기의 피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보리쌀이라도 한 되박 사다가 보리죽이라도 따끈하게 쑤어서 대접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영숙이는 《혈액 은행》 (피를 사는 곳)으로 달려 갔습니다. 피를 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영숙이는 한나절이나 기다려서야 겨우 차례가 돌아 왔습니다.

《395 번, 오 영숙 접수합시다.》

《예!》

영숙이는 아침에 받았던 접수 쪽지를 의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의사는 안경 넘어로 영숙의 아래 우를 훑어 보더니

《넌 어려서 안돼! 그리구 너처럼 여윈 몸에서 뽑아 낸 피는 소용이 없어.》 하고 퇴놓고 마는 것이였습니다. 영숙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선생님, 저의 피를 꼭 사 주세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앓고 있어요. 어머니는 굶고 계셔요. 불쌍한 나를 도와 주세요. 네…》

《일에 방해가 돼, 어서 나가라!》

《선생님 한 번만 받아 주세요, 네.》

영숙이는 의사의 옷소매를 부여 잡고 애타게 졸랐습니다. 그러나 그 놈은 영숙이를 밖으로 밀치고 문을 쿵 닫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숙이는 병원 문 앞에 주저 앉아 목노아 울었습니다. 병원에 모여 섰던 사람들은 영숙이의 이 모습을 보고 모두 동정의 눈물을 흠쳤습니다.

피를 뽑고 허둥지둥 병원문을 나서던 한 젊은 아저씨가 영숙이의 이 딱한 사정을 보고 얼마나 가엾었던지 그를 데리고

나오다가 자기의 피를 판 돈으로 두부 비지 두 덩어리를 사 주었습니다. 영숙이는 그 아저씨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영숙이는 몇 번이고 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는 자기는 거리에서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모두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영숙이의 여윈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잘 해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려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영숙이는 굶어 가면서도 이를 악물고 학교에 나가군 했습니다.

하루는 대수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일어 서다 그만 정신이 아찔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끝내 동무들에게 업혀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영숙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녁녘이였습니다. 영숙이는 허전거리는 다리를 가누며 어머니에게 대접할 음식을 구하려 또 동냥을 떠났습니다.

영숙이는 어두워서야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가 방문을 열자고 하는데 방안에서 마을 아주머니에게 하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말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원하게…국수를…좀 먹었으면 살아 날 것 같은데…원 어디 돈이 있수.》

문 밖에서 이 말을 들은 영숙이의 가슴은 메여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숙이는 어머니가 그토록 잡수시고 싶어하는 국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가슴을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그날 밤 밤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국수를 한 그릇 사다 드릴가.)

영숙이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방안을 휘둘러 보았지만 값이 나갈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득 영숙이의 시선은 책가방에 가 멎었습니다.

(저걸 팔면 국수 한 그릇 값은 되겠지.)

영숙이는 어머니 모르게 교과서를 꺼내 들고 동대문 시장 책방으로 갔습니다.

영숙이는 30원을 받아 들고 국수 집으로 달려 가 국수 한 그릇을 받아 들고 어머니 한테로 달려 왔습니다.

《어머니, 국수 잡수세요!》

영숙이가 뜻밖에 국수를 가지고 들어 오는 바람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어머니는 국수를 앞에 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경찰관 놈과 관리 한 놈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 섰습니다.

《세금을 오늘은 당장 내야겠다. 다섯 달 분이나 밀렸으니 인제는 그냥 둘 수 없다. 엉》

그 놈은 울려멨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앓고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영숙이는 사정했습니다.

《뭐! 돈이 없다는 것들이 그래 국수를 사다 놓고 먹어?》

그 놈은 구두'발로 국수 사발을 차 버렸습니다. 사발은 두 동강이 났고 국수는 방'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앓는 어머니에게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하려고 별의별 애를 다 썼지만 그는 끝내 이런 봉변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영숙이는 어머니를 붙안고 세상을 원망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못살 남조선 땅에서 이 불쌍한 어머니와 딸을 누가 구원 해 주겠습니까. 오직 미국놈을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 시켜야만 그들은 구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 (환상) (이야기)

잠수어선 99호

(2 회)

김 윤 덕

그림 양 재혁

아저씨는 벙실벙실 웃으시고 나서 애들의 호기심을 끌어 낸 데 만족을 느끼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바로 물'고기들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타산해서 고기떼를 찾는단 말이다.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물'고기는 물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적당한 온도를 찾아 헤염쳐 다닌단다.

우리 나라에 흔한 명태는 물의 온도가 2 도 내지 4 도인 곳을 좋아 하기 때문에 겨울에 찾아 들고, 고등어는 10 도 내지 15 도의 온도를 따라 이동한단다. 그래 명태를 랭수성 어족이라 하고 고등어를 온수성 어족이라고 한단다.

정어리 같은 물'고기는 물의 온도가 18 도~19 도인 곳을 따라 헤염쳐 다니는데 1 도의 십분의 일만한 온도가 변해도 정어리는 곧 감촉한단다.

또 어떤 것은 빛을 찾아 다니기도 하고 자신이 초음파를 내기도 한단다.

낙지는 자기들의 먹는 새우가 빛을 내기 때문에 빛을 찾아 헤염치기 좋아 하거든..

그래서 이런 성질을 리용해서 고등어를 잡으려면 물의 온도가 12 도인 층을 배가 달리도록 자동 원격 조종 장치를 해 놓으면 배가 저절로 고등어 떼를 찾아 가기 마련이란다.

또 물'개나 고래를 잡으려면 이것들이 거의 2만 내지 3만 헬쯔의 초음파를 낸다는 성질을 리용해서 초음파를 찾아 배가 움직이도록 조절을 하면 고래보다 배의 속도를 빠르게 놓았을 때 배는 고래를 만나기 마련이거든.

이 모든 유도 장치들은 20 세기 50년대 우주 로케트가 나르면서부터 널리 알려진 것이고 다만 잠수 어선에 적용했다는 데서 차이가 있을 뿐이란다. 어더 알만들 하냐?》아저씨는 애들을 보셨다.

《아저씨, 원격 조종 장치가 뭐나요?》 춘자가 또 물었다.

《그건 앉아서 계기들을 조절해 놓으면 기계가 제절로 움직여 목적한 곳까지 가 목적한 일을 하게 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이제 우리가 실지 해 볼테니까 보면 더 잘 알게 될게다.》

《아저씨, 빨리 고기를 잡읍시다.》

호길이는 텔레비죤 영사막 속의 헤염쳐 지나가는 고등어를 바라보며 아저씨에게 조급하게 졸라댔다.

아저씨는 호길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나서 천천히 게시판에 다가가서 한 단추를 누르며 소리쳤다.

《모선! 모선! 여기는 99 고지, 여기는 99 고지!》

《여기는 <어머니>, <어머니>, 99 고지 소리를 듣는다, 위치는?》

《초음파 4반 헬쯔, 들었는가?》

《어머니, 들었다.》

목소리가 서로 울렸다.

《저 고기떼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라!》

아저씨는 어떤 단추를 다시 눌렀다. 가벼운 기계 소리가 룽탕룽탕 운전실 안까지 들려 왔다.

무슨 장면이 벌어질련지 그들은 긴장된 얼굴로 계기판에 달린 텔레비죤 영사막과 아저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앗! 이게 웬 일인가?!)

지금까지 텔레비죤 영사막에서 유유히 헤염치고 있던 물'고기들이 갑자기 곤두박질을 하더니 흰 배를 우에 내 놓으며 떠 오르는 것이였다.

아저씨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분주히 어떤 단추들을 다루고 있었다.

잠수 어선의 가볍던 발동기 소리도 한결 높아졌다.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이 분명하였다.

뜻하지 않은 장면에 애들은 눈이 휘둥굴해졌다. 춘자는 참지 못해 아저씨에게로 다가서며 물었다.

《아저씨, 저 고기들이 왜 저러나요? 어서 설명해 주세요.》

아저씨는 호기심과 놀라움에 가득찬 애들의 얼굴을 바라 보며 빙그레 웃으시고 나서 천천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잠수 어선의 좌우에는 긴 팔이 뻗어져 있다. 아마 아까 너희들이 이 배에 오를 때 주의해서 봤더라면 알았을 게다. 그것은 너희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극판이 다 전기 분해 할 때의 전극판과 똑 같지.》

《아하, 흥남 비료 공장에서 물을 전기 분해 할 때의 그 전극판과 같은 셈이군요.》 호길이가 알겠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옳아, 바로 그거다. 전기를 통과시키는 성질의 물질을 도선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들이 쓰는 동선을 화학에서는 제 1 종의 도선이라고 하고 바다'물과 같은 도선을 제 2 종의 도선이라고 한다. 제 1 종의 도선에서는 금속 원자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를 옮기지만 바다'물 같은 제 2 종의 도선에서는 이온이라는 게 움직이면서 전기를 옮긴단다. 좀 힘든 이야기지만 사실 순수한 물은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지만 그 속에 어떤 소금이 녹아 있으면 물은 전기를 잘 통과시킨단다. 바다'물에는 소금이 녹아 있기 때문에 전기를 아주 잘 통과시킨다.

결국 잠수 어선에 있는 원자력 발전기에서 일군 전기를 길게 좌우로 뻗친 두 전극 사이에 통과시키는 셈이지.

그러면 두 전극 사이에 들어 있는 고기들은 전기에 감전되여 의식을 잃고 쓸어지고 만단다. 원리상으로는 아주 간단하지. 보통 10 암페아의 전류의 세기에 8 볼트의 전압이 걸리면 고기는 의식을 잃고 만단다.》

《아니 아저씨, 그러면 이 잠수 어선에 탄 사람들과 기계들도 전기에 감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일이가 물었다.

《그런 걱정은 없다. 그만한 정도의 전기에 사람은 일없단다. 설사 감전된다고 쳐도 두 전극이 잠수 어선 우로 경사져 뻗어 있어서 두 전극 사이만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딴 데는 일없단다.》

《아니 그럼 딴 배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춘자가 의심스러운듯 물었다.

《그것도 근심할 것은 없어. 왜냐 하면 전류가 곡선을 그으며 흐르는 것이 아니라 두 전극 사이의 직선 거리를 흐르며 전극의 면적만한 너비로만 흐르기 때문에 그 전극 밖에 있는 어떤 물질도 전류에는 결코 감전되지 않거든. 알만 하냐?》

《예, 알겠습니다.》 춘자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아저씨, 저 것 봐요. 드문드문 섞여 있는 가재미도 막 쓸어져요.》

《음! 가재미라고 별 수가 있겠니. 어떠냐? 우리 과학자 아저씨들이 실로 흥미 있는 어선을 만들었지? 이런 고기'배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있지. 아 참,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군…》아저씨는 혼자'말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어선의 좌우에 뻗어 있는 전극의 길이는 1,000 메터이고 그 끝에는 긴 전극 선이 늘어져 있다. 그리고 전극은 로케트의 날개처럼 뒤로 뻗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0 메터의 길이에 너비 50 메터, 시속이 1,200 메터이니까 결국 한

시간 동안에 잠수 어선이 통과한 구간은 1,000×50×1,200 메터이다. 이 구간에 들어 있는 고기들은 단 번에 녹아나는 셈이지, 결국 흔히 보아 오는 그물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그물로 바다 우에서가 아니라 직접 고기가 헤염치는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유심히 계기판과 영사막을 번갈아 보시던 아저씨는 한참만에 어떤 단추를 또 하나 눌렀다.

애들은 발밑이 울리는 감을 느꼈다.

《자, 이젠 그만하고 바다 우에 올라 보자,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한참 후 잠수 어선은 그 육중한 몸을 뒤저으며 바다 우에 솟아 올랐다.

애들은 아저씨의 뒤를 따라 갑판 우로 올랐다.

《야! 저거.》 애들은 소리 높이 웨쳤다.

실로 사람의 지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고기 비늘 마냥 반짝이는 바다 물'결 우에는 무수한 고기들이 흰 배를 들어 내고 펄떡이고 있었다. 실로 온 바다가 동화에서나 나오는 바다처럼 고기로 뒤덮여 있었다.

바다가 아니라 잠수 어선이 바로 물'고기에 떠받들리며 룡궁에라도 찾아 가는 것 같았다

《호길이, 네가 아까 이야기하던 전기로 고기를 잡는다는 게 바로 잠수 어선이구나. 아까 넌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니?》 광일이가 호길이의 어깨 우에 손을 올려 놓으며 말하였다.

호길이는 묵묵히 바다 우를 바라보며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호길이의 교슬교슬한 머리칼이 바다'바람에 나붓겼다.

《야! 호길이가 좀 더 일찍 이런 것을 생각했더라면…하 하 하!》

광일은 호길이의 어깨를 손으로 툭 치며 깔깔 웃었다.

《아저씨, 저 물 우의 고기는 어떻게 하나요?》

춘자가 물었다.

《모선이 올 게다. 옳아 벌써 나타나는군, 저기를 봐라, 모선이다.》

애들은 아저씨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아득히 먼 수평선 우에 까만 반점이 뒤에 솟은 흰 구름에 뚜렷이 보였다. 그 반점은 삽시간에 커지기 시작하더니 한참 후에는 벌써 자기의 정체를 뚜렷이 드러내 놓았다.

실로 그 배의 속도가 빠르기란 로케트가 바다 우를 스치며 날아 오는 것만 같았다.

거기에 그 속도에 대한 놀라움만이 아니였다. 배 모양도 묘한 것이였다.

보통의 배는 이 잠수 어선도 포함해서 뾰족한 칼날 같은 배'머리로 파도를 좌우로 가르며 물 우를 달리건만 그 배는 가운데로 파도를 일쿠며 달리고 있었다.

《아니 저게 저게?》 광일이가 다급히 웨쳤다.

《동무들은 좌우로 물'결을 가르며 달리는 배에만 습관되여 있기 때문에 놀래는군. 저 배는 물'결을 좌우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배 복판으로 물을 모아 뒤로 뿜으며 달린단다. 즉 보통의 배를 좌우로 갈라 놓고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삥 돌려 붙여 놓은 셈이지. 저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저 가공 모선은 속력이 보통 배보다 2 배나 빠르단다. 그리고 물은 한곳으로 모아 뒤로 뿜으며 달리기 때문에 물 우에 뜬 고기들이 배 중간에 걸쳐 있는 그물에 모두 걸려 저절로 물'고기가 저장통에 밀려 들어 가게 되여 있지.》 애들은 다만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저 모선은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가공까지 하게 되여 있다. 이자 말한 것처럼 모선이 달려 오는 힘과 뒤로 물러 가는 물의 힘에 의해서 물'고기가 저절로 그물에 걸려 저장통에 들어 가게 되고 그 안에서 저절로 통조림이 되게 되여 있단 말이다.

저것 봐라! 모선이 얼마나 게걸스럽게 물'고기를 빨아 들이고 있니? 결국 고래가 바다'물과 함께 물'고기를 빨아 들여서는 고기만을 먹고 물을 수염으로 내 보내는 것과 비슷하지.》 아저씨는 신'바람이 나서 설명을 계속했다. 그새 바다 우의 고기는 다 없어지고 말았다.

《붕! 붕!》 가공 모선에서 신호가 울렸다. 인젠 돌아 간다는 신호였다.

《자, 우린 이번에는 고래잡이를 해 보자.》 아저씨가 벌써 탑을 향해 걸어 갔다. 애들은 고래 잡이라는 바람에 바짝 호기심이 났다. 그들은 모선을 타고 돌아 가고 싶던 생각을 버리고 다시 아저씨의 뒤를 따랐다.

잠수 어선은 무수한 잔 거품을 일쿠며 발동기 소리도 경쾌히 천천히 물' 속으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운전실에 들어 선 애들은 새 것에 대한 호기심에 불타 올랐다.

《아저씨, 전기에 감전된 물'고기를 먹어도 일없나요?》 광일이가 무슨 생각을 했던지 불쑥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다.

《원, 넌 전기로 잡은 물'고기를 먹어 보지 못했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많이 먹어 봤어, 아무 것도 다른 게 없어.》 호길이가 가로 채여 말 참견을 했다.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시고 나서 《왜 겁이 나냐? 못 먹을가 싶어. 이자 얘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기에 감전되였다고 해서 물'고기의 기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얼마간의 의식을 잃을 다름이다.》

광일이는 공연한 질문을 했다고 무한해 하였다.

잠수 어선은 새로운 전투에로 바다 속을 뚫고 앞으로 앞으로 달렸다.

애들은 고래 잡이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 전에 어떤 원리로 이 잠수 어선이 고래를 잡느냐고, 먼저 설명해 달라고 졸랐다.

《이제 직접 보면 알 수 있겠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들 이러누나.》

아저씨는 끝내 애들의 성화에 못이겨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로 했다.

《역시 아까 설명한 바 대로 고래의 초음파를 따라 잠수 어선이 움직이도록 유도 장치를 해 놓거든. 그러면 고래가 가는 길을 따라 잠수 어선은 자유 자재로 달리게 되는거다. 고래가 물 우로 솟아 오르면 잠수 어선도 물 우로, 혹은 물 속으로 말이다.

그러나 잠수 어선의 속력이 고래보다 빠르니 결국 고래를 따라 잡기 마련이지. 꼭 로케트 유도탄이 목표물을 향해 달려 가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다가 잠수 어선의 배'머리에 있는 전기포가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고래가 가까와졌을 때 전기포를 쏘면 고래는 영락 없이 쓸어지고 말지. 전기포가 유도탄처럼 고래에 따라 가 맞으니까 백발 백중이란 말이야.》

《아저씨, 전기포는 얼마나 멀리 가나

요?》

역시 따지기를 좋아 하는 호길이가 물었다.

《원래 전기포에 대한 실험은 19 세기 후반기에 영국의 어떤 학자가 공기 중에서 실험을 했단다. 그 때에는 겨우 1 메터의 거리에서 전기포의 효과가 있었단다. 즉 공기가 전기의 도체 역할을 아주 적게 밖에 못하기 때문이다. 1 메터란 너무나 가까운 거리고 해서 그 전기포는 쓸모가 없게 됐지.

그러나 바다'물 속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기를 잘 통과시키도록 하여 주는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유효 거리는 전류의 세기가 셀 때 150 메터에까지 달한다.》

《야, 굉장하군요.》 춘자는 아저씨의 얼굴을 올려다 보며 귀여운 눈을 되룩거리며 감탄했다.

《이렇게 전기포로 고래를 쏘고는 고래에 작은 특수 초음파 발생 장치를 걸어 놓고 잠수 어선은 또 새 고래를 찾아 새 전투에로 향한다. 그러면 후에 모선이 고래에 달아 놓은 초음파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 와 고래를 떠 실어서 가공을 하게 된다.》

《야!》 애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 보며 그럴듯 하다는 듯이 머리들을 끄덕였다.

《결국 잠수 어선은 동무들이 잘 알고 있는 유도 로케트와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바다 속의 유도 로케트지.》

《아저씨, 그런데 어째서 이 배가 이렇게 큽니까?》 또 호길이가 물었다.

《그건 이 배가 원자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암만 커도 다니는데 연료가 더 먹을 폐단이 없다. 그런데 그 보다도 이 배가 자체로 전기를 일궈 고기를 잡기 때문에 크고 복잡한 기계들을 많이 장치해서 그렇단다. 이 배는 추진기와 발전기가 거의 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배로 1 년 동안에 얼마의 고기를 잡습니까?》

《대체로 한 잠수 어선이 20 만 톤을 잡고 있단다.》

《야! 굉장하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 1 년에 80만 톤의 물'고기를 잡을 때 만약이 배가 있었다면 이런 배 너덧 개만 있었으면 되였겠구만요.》

약바른 춘자가 어느 새 계산해 냈는지 이렇게 말했다.

《춘자가 아주 계산이 빠르구만. 이럴 때면 그렇지. 이 배야말로 바다의 대 변혁이다. 우리 나라 학자들이 만들어 낸 이 잠수 어선은 고기 잡이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 오게 했단 말이다. 지구의 3 분의 2를 차지하는 대양을 정복하는 그리고 자연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는 <식료품 저장고>를 우리는 정복한 셈이란 말이다. 얼마나 위대하냐!》

잠수 어선은 위력이라도 자랑하는듯 고르로운 발동기 소리를 울리며 앞으로 달렸다.

《실로 우리 나라 과학자 아저씨들은 얼마나 귀중한 보물을 인류에게 제공하였는가 말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고된 일로 알려진 어로 작업마저 흥겨운 일로 만들지 않았느냐. 결국 고기 잡이가 모두 자동화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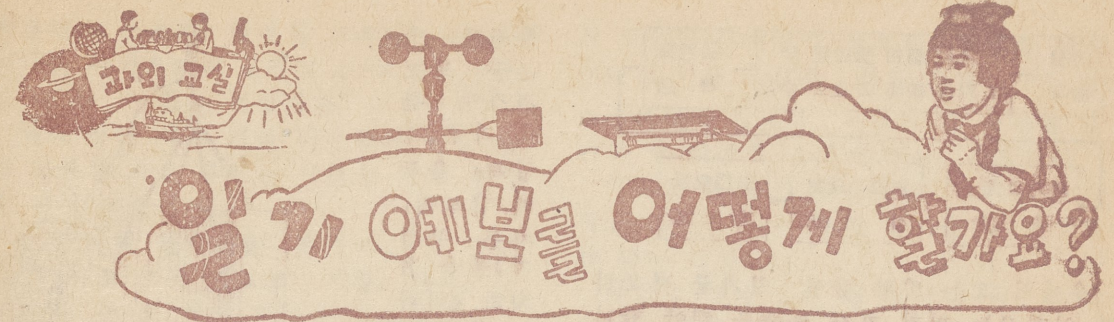
오직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붉은 과학자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귀중한 보물을 우리 인민에게 선물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애들은 아저씨의 말씀이 끝나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들도 어서 자라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님, 누나들이 만들어 낸 것보다 더 훌륭한 보물을 나라 앞에, 인민 앞에 내 놓아야 하며 나라의 훌륭한 기둥이 되여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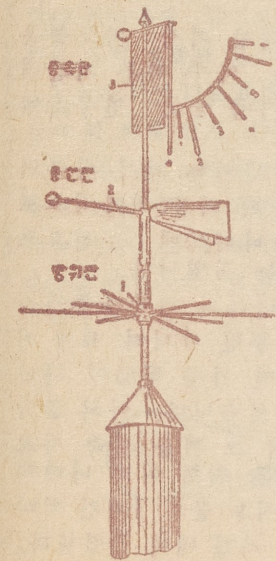
(광일이, 호길이, 춘자 이들도 미래를 두 어깨에 걸머지고 새 기적을 창조할 씩씩한 어린이들이다. 어서 어서 마음껏 자라라. 활짝 꽃피여라. 그리고 미래를 더욱 앞당기여라……)

잠수 어선은 폭음도 경쾌히 바다 속을 달려 앞으로 나아갔다. 어린이들의 미래를 앞당기려는 듯…

(끝)

기상 수문 연구소 김 면 기

요새 편집부는 공화국 각지 소년단원들로부터 일기 예보를 어떻게 하는가 알려 달라는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중앙 기상 수문 연구소 선생님들에게 이 대답을 해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동무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 라디오에서 하는 일기 예보를 들으며 《일기를 어떻게 미리 알아 낼가?》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씨를 알아 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늘이나 동식물 등 자연 현상을 보고 날씨를 미리 알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 옛날부터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하늘을 쳐다 보고 저녁에 노을이 붉게 나타나면 다음 날은 개이고 아침 노을이 생기면 낮에 비가 온다고 하였으며 또 개미가 이사를 하면 큰 장마가 진다고들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처럼 과학이 발달하기 전 우리의 조상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지내 오면서 알아 낸 방법입니다.

《윌드 풍신기》

그러나 이 방법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기 예보처럼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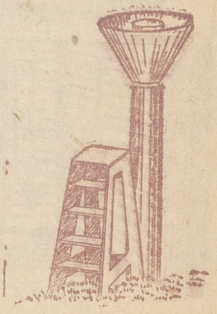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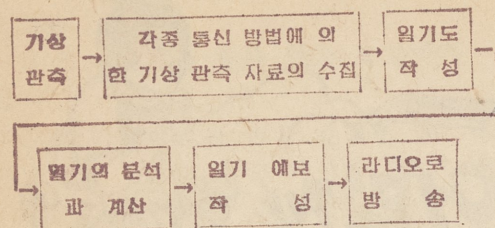
둘째로는 공기의 압력, 온도, 바람 등을 재여 가지고 그 재료를 분석해서 알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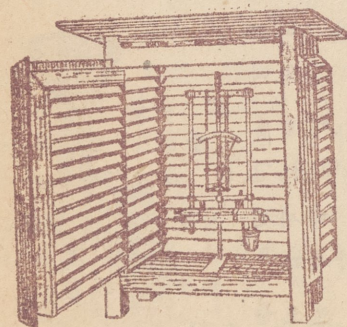
그런데 이 방법은 아주 복잡해서 전자 계산기가 없이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일기 예보에 필요한 복잡한 계산 공식은 사람이 혼자서 계산해 내자면 아마 10년은 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 계산기는 단 20 분 동안에 저 홀로 계산해 냅니다.

세째는 세계 각지에 널려 있는 여러 나라의 기상 관측소들에서 관측한 기상 자료를 지도 우에 기록하여 일기도를 작성하고 그 일기도를 보고 일기를 알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째 번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일기를 어떻게 알아 내는가를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합시다.

먼저 일기 예보를 작성하는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추형 방풍 장치가 달린 《우량계》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기를 예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상 관측을 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 상에는 약 1만여 개의 기상 관측소들이 있습니다. 이 관측소들에서는 어김 없이 3 시간 간격으로 3 시, 6 시, 9 시, 12 시, 15 시, 18 시, 21 시, 24 시에 아주 정확하게 자기 지방의 일기(구름, 바람, 공기의 온도, 기압, 습도, 비, 눈, 안개 등)를 관측합니다.

일기를 관측할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관측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계기들인 풍속계, 온도계, 습도계, 우량계 등으로 관측합니다. 만약 구름을 관측할 때에는 구름이 하늘을 덮은 량이 얼마나 되며 구름이 땅우에서 얼마의 높이에 있고 또 그 구름이 어느 쪽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향해서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 등을 자세히 관측합니다. 또한 바람, 온도, 기압 등은 현재 얼마나 되는데 그것이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등을 땅 우에서 뿐만 아니라 5,000 m, 10,000 m의 공중에서는 얼마나 되는가를 관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하늘의 일기 상태는 어떻게 관측할가요?

《기구가 장치된 백엽상》

기상 관측소들에서는 보통 12 시간에 한 번씩 직경이 1.5~2 m 만큼 되는 큰 고무 풍선에 수소를 넣고 거기에 관측 기구(기압계, 온도계, 습도계, 자동 무전기)들을 설치한 《라디오 존데》란 기구를 띄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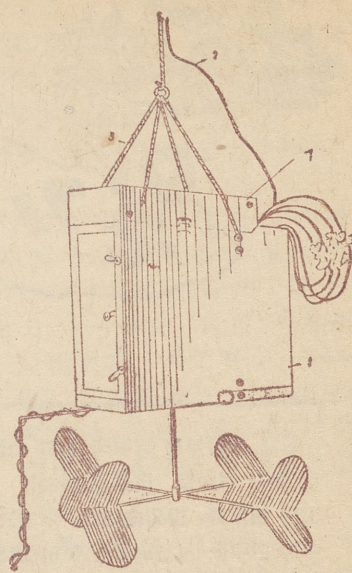
《라디오 존데》

《라디오 존데》는 1 분간에 200 m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하늘에 오르면서 기압, 기온, 습도, 바람의 방향 등을 제절로 측정하여 자동 무전기로 지상에 보내 준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 존데》는 일정한 높이에 올라 가면 저절로 파괴되는데 이때 관측 기재들을 넣은 통은 락하산의 도움으로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동무들이 산 속이나 들판에서 이런 것을 줏게되면 꼭 중앙 기상 수문 연구소에 보내 주십시요.

이렇게 자세히 관측한 기상 자료들은 무전기로 혹은 전화로 아주 빠른 시간내에 자기 나라 중앙 기상 수문 연구소에 보내 옵니다.

그러면 매개 나라들에서는 자기 나라의 일기를 종합하여 약속된 시간(세계적으로 시간이 약속되여 있습니다.)에 무전으로 각국에 알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나라의 관측소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일기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재 어떤 기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상 관측을 진행하며 그 기상 관측 자료를 나라 안에서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보내 주고 받는 일까지도 불과 1시간 이나 2시간이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끝냅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양에 앉아서도 신의주나 모천모의 일기는 물론이고 중국의 북경, 쏘련의 모쓰크바, 일본의 도꾜나 인도네시아의 쟈카르타의 일기도 1~2 시간 후에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기상 관측 자료를 모은 후에는 이것을 지도 우에다 적어 넣습니다.

이 지도에 관측소를 표시하고 그 주위에 수'자로 또는 기호로 기압, 기온, 습도, 비, 눈 등 여러 가지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일기를 한 지도 우에 기록하면 지구 상의 어디서 비와 눈이 오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디가 덥고 추운가를 한 눈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일기도를 가지고 앞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찬 바람과 더운 바람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흘러 가게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일기도의 자료를 가지고 계산할 때 특히 구름이나 바람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면서 어느 쪽으로 흘러 가겠는가를 잘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잘 못되면 일기를 잘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일기도를 가지고 지구상 여러 곳에 일기를 잘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알아 낸 일기를 우리는 라디오를 통해서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 일기를 사람에게 리롭도록 조절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앞으로의 날씨를 알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봄에 비가 오지 않고 가물 때에는 비를 오게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올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말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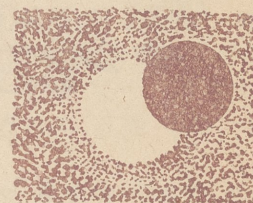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 일식을 볼 수 있다

언제나 일식은 음력 그믐이나 초하루에 일어나고 월식은 음력 보름에 일어난다.

일식은 18년 11일(6,585일)만에 한 번씩 일어 난다.

일식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 가운데 들어 와서 태양을 가리우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때 달이 완전히 태양을 가리우게 될 때는 금환 일식이라고 하고 어느 한쪽만 가리우게 될 때에는 부분적 일식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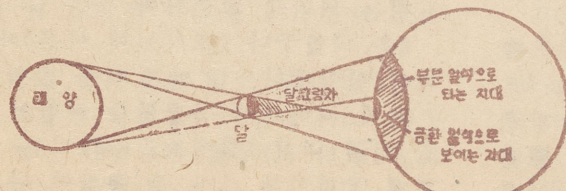
금년에 일어나는 일식은 부분적 일식이다. 1월 14일에는 지구의 남극 지역에서, 7월 9일에는 북극에서, 6월 10 일에는 호주, 태평양 남부에서, 12월 4 일에는 태평양 북부와 아세아주 동북부들에서 부분적 일식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12월 4일에 함북 온성군 일대에서 일어 난다. 8시 25분 51초에 오른 쪽 우에서 해가 이지러지기 시작하여 10시 25분 8초에 왼 쪽 우에서 끝나게 된다.

이 때 온성에서는 태양 직경의 약 10분의 3이 이지러진다.

평양에서는 같은 날 8시 37분 45초에 일식이 시작되는데 그때 우리는 태양 직경의 10분의 1 정도로 이지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금환 일식으로 될때 태양, 달, 지구의 위치

(동화)

다시 돌아온 매

김 원 필

어느 늦은 가을이였습니다. 옥이 할아버지는 산과실을 따려 큼직한 바구니를 메고 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양지 바른 벼랑 밑에 오미자 넝쿨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참, 올해엔 산과실도 풍년이야.》

할아버지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탐스러운 오미자 송이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바람'결에 어렴풋이 달랑달랑하는 방울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가? 이 깊은 산 속에서…)

옥이 할아버지는 어데선가 귀익은 방울 소리에 일'손을 멈추고 소리 나는 쪽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아무 것도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있다. 이제 금방 분명히 귀익은 방울 소리가 들려 왔는데…)

잠시 후 옥이 할아버지는 다시 산과실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이번에는 분명히 할아버지 머리 우쪽에서 방울 소리가 련거퍼 세 번이나 《달랑…달랑…달랑》하고 들려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문득 고개를 쳐들고 머리 우를 바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다를가 머리 우 까마득한 벼랑 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무엇이 푸득거리는 것이였답니다. 한 번 푸득거릴 때마다 방울 소리가 달랑 하고 울려 오는 것이였지요.

(응 저곳에 무슨 곡절이 있는가부다. 어디 올라 가 보자.)

이렇게 생각한 옥이 할아버지는 몽둥이를 한 개 꺾어 들고 급히 벼랑 옆을 에돌아 소나무가 서 있는 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거기 소나무 꼭대기에는 매 한 마리가 앉았는데 글쎄 소나무 줄기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대가리를 쳐 들고 혀를 날름거리며 기여 올라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구렁이를 본 매는 질겁을 해서 기를 쓰며 막 날아 오르려고 했지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날아 오르지를 못하고 그저 안타까와 날개만 푸득거릴 뿐이였답니다. 푸득거릴 때마다 꽁지에 달린 조그만 방울이 달랑달랑 소리를 내군 했지요.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 보고 섰던 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며

《응, 너였구나. 〈보라〉(매 이름)야, 네가 여기 있였구나. 내 다시 너를 살려 주지.》

하며 재빠르게 몽둥이를 쳐들어 구렁이를 힘껏 내리 쳤지요, 《찡》하는 소리와 함께 구렁이는 그만 두 동강이 나서 나무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제야 매는 살아 났다는듯이 나무 가지 우에서 날개를 쭉 펴고 옥이 할아버지를 말끔히 내려다 보는 것이였지요.

일인즉 이렇게 되였던 것이랍니다.

옥이네 집에는 지난 봄부터 매 한 마리가 생겼지요. 그것은 약초 작업반에서 일하는 옥이 할아버지가 약초를 캐러 높은 산에 올라 갔다가 벼랑 밑에 떨어져 울고 있는 새끼매 한 마리를 얻어서 집으로 가져 왔던 것이랍니다.

새끼매를 보자 옥이는 기뻐하며

《할아버지, 이 새끼매는 오늘부터 제가 맡아서 기를테야요.》

하고 말했습니다.

《응, 그래라. 그놈이 크면 가을에 꿩을 잘 잡을게다.》

그래서 옥이는 그날부터 새끼매를 맡아서 기르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 오면 새끼매를 데리고 들로 나가서 올챙이랑 메뚜기랑을 잡아 먹였지요.

옥이 할아버지는 또한 새끼매를 위해서 마당'가 닭우리 곁에다 나무로 덩그러니 덕을 매 주였답니다.

새끼매는 매일 옥이가 잡아다 주는 고기를 먹고 할아버지가 매 준 덕 우에 앉아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옥이는 학교에서 돌아 오자 곧바로 새끼매한테로 가더니

《매야, 귀여운 매야, 오늘은 내가 네게 멋진 선물을 하나 주마.》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놀던 은방울을 매의 꼬리 뒤부리에 달아 주었습니다. 새끼매는 옥이가 달아 준 은방울을 보고 몹시 기뻐했지요. 한 번 꼬리를 흔들어 보니 달랑달랑 소리가 나는 것이 여간 재미 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새끼매는 닭들이 옆에서 분주히 모이를 찾고 있을 때에도 덕 우에 척 앉아서 방울만 달랑달랑 흔들었지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는

《응 그놈이 이젠 제법 방울 소리까지 내니 어엿한 사냥매가 됐구나. 그럼 나도 선물을 하나 주지.》

하면서 발목에다 가죽으로 띠를 만들어 씌우고 고운 명주실로 끈을 만들어 달아 주었답니다.

새끼매는 더욱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옥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새끼매를 데리고 사냥을 나가게 되였습니다. 새끼매가 꿩 사냥을 얼마나 잘 하나 시험을 해 보려는 것이였지요.

산 기슭에 이르자 할아버지는 지팽이로 가둑숲을 쳐서 까투리 한 마리를 일구었습니다.

《후야—》소리와 함께 옥이의 팔 소매에 앉아 있던 새끼매는 어느덧 깃을 치며 날아 올라 까투리를 다좇아 갔지요. 잠간 사이에 새끼매는 까투리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왔답니다.

《참 용하다. 새끼매야! 이제부터는 너를 새끼매라 부르지 말고 〈보라매〉라고 불러야겠다.》

이때로부터 새끼매는 용감한 매라는 뜻으로 《보라매》라고 불리우게 되였답니다.

꿩 사냥을 잘 하는 용감한 《보라매》는 그 후부터 더욱 옥이네의 사랑을 받았지요. 먹을 것도 더 맛 있는 것을 주고 잠'자리도 더 좋은 데를 마련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보라매》는 더욱 힘이 세지고 살이 져서 깃에는 반지르르 기름'기가 돌았답니다.

그런데 옥이네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보라매》는 점점 우쭐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꿩 사냥을 안해도 옥이네가 매일 맛 있는 고기를 가져다 주고 또 밤에는 이슬이 맞을세라 방안에 들여다 특별한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니까요.

그래서 《보라매》는 사냥을 할 궁리보다도 어떻게 하면 몸치장을 잘 할가를 생각했답니다. 매일 깃을 고루고 주둥이를 닦고 방울을 달랑달랑 흔드는 것이 《보라매》의 일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였답니다. 덕 우에 한가로히 앉아서 몸치장만 하고 있던 《보라매》는 마당'가에서 흙투성이가 되여 분주히 모이를 찾고 있는 닭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흥 못난 것들은 할 수 없단 말이야, 저게 무슨 꼴이람. 온몸에 흙탕을 뒤집어 쓰고 먹을 것을 찾느라고 부산을 피우니

…짐승은 잘나고 볼 거야.)

《보라매》는 자기가 가만이 앉아서 잘 먹는 것이 새들 중에서 제일 훌륭하고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못난》 닭들을 한바탕 골려 줄 생각을 했지요.

《얘 꼬꼬댁들아, 너희들은 거기서 뭣들 하고 있니?》

《응, 우리 말이냐? 주인에게 알을 더 많이 낳아 주려고 먹을 것을 찾고 있다.》

《뭐 알을 낳아 줘? 그런데도 주인이 너희들에겐 먹을 것을 주지 않던?》

《우린 너처럼 주인이 주는 것이나 받아 먹는 그런 짐승이 아니다. 우린 우리 먹을 걸 제손으로 찾아서 먹는다.》

《흥, 제손으로 찾아서? 그래 꼴 좋구나. 온통 흙투성이가 돼 가지구 너희들은 그렇게 못난 짐승들이니까 할 수가 없단 말야.》

하며 《보라매》는 꼬리를 흔들어 방울 소리를 내여 점잖을 빼 보였습니다.

이때 마당 한켠에서 모이를 쫗고 있던 수탉이 《못난》짐승이란 말에 성이 잔뜩 나서 《꾹꾸꾸, 뭣이 어쨌다구? 못난 짐승이라구?》

하며 막 달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암탉들도 가만이 있지를 않았답니다.

《꼬꼬 꼬꼬댁, 무엇이 어쨌다고 다시 한 번 말해 봐라.》

《꼬꼬 꼬꼬댁. 놀고 먹길 좋아하는 이 망난이야.》

닭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하며 달려 들었답니다.

일이 이쯤 되니 《보라매》는 더욱 부아가 나서

《흥, 못난 것들이 나한테 달려 드는구나. 어디 달려 들테면 들어 봐라, 본때를 한 번 뵈 줄께!》

하며 날개를 쭉 펴고 금시 사나운 발톱으로 닭들을 내리 덮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지요. 발목에 단 명주곤이 나무에 단단히 비끌어 매워 있었으니까요. 그저 날개만 푸득거릴 뿐이였답니다.

그러자 닭들은 더욱 승기가 나서 꼬꼬댁거렸지요.

닭들을 놀려 주려다 도리여 톡톡히 망신을 당한 《보라매》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러구야 무슨 면목이 있어 여기에서 산담, 한시 바삐 이 곳을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니 자기 발목에 노끈을 매 준 옥이 할아버지가 몹시 원망스러웠답니다.

그 후부터 《보라매》는 자나 깨나 발목에 맨 노끈을 풀어 버릴 생각만 하고 있였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 날 아침이였답니다.

약초 작업반 할아버지네들은 겨울을 앞두고 다시 《보라매》의 솜씨를 시험해 보려고 꿩 사냥을 떠나게 되였습니다. 꿩 사냥을 떠나게 된 《보라매》에게는 언뜻 이런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옳지, 오늘이야 소원을 이루는가부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마음 대로 훨훨 하늘을 날 것이 아닌가, 꼬꼬댁들도 한 번 혼쌀을 내 주고…)

생각만해도 《보라매》의 마음은 한결 거뜬해졌습니다. 《보라매》는 방울을 힘 있게 흔들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보라매》의 이런 속심을 모르는 할아버지네들은 산에 이르러 꿩 한 마리를 일쿠자 《보라매》를 높이 추켜 들어 놓아 주였답니다.

(옳지, 이 때다!) 하고 생각한 《보라매》는 날개를 쭉 펴고 기운차게 공중으로 날아 올랐지요. 처음 얼마 동안은 꿩을 좇아 가는 척 하다가 그 다음은 하늘 높이 날아 올랐습니다. 할아버지네들은 그러다 내려 오겠거니하고 높이높이 올라 가는 《보라매》를 눈 주어 바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라매》는 그만 보이지 않게 되였습니다.

《참, 별일도 다 있군.》 할아버지들은 기다리다 그만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 오셨습니다. 행여나 《보라매》가 집으로 바로 가지나 않았을가하고 바삐 돌아 와 봤습니다. 제 갈 데로 간 《보라매》가 집에 돌아 와 있을 리 없었지요.

할아버지의 손에서 떠난 《보라매》는 넓더넓은 산과 들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고 모든 것이 제 세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라매》는 우선 산과 들 구경부터 하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높은 산'봉우리를 에돌며 우거진 숲 속에서 재잘거리던 산'새들은 《보라매》가 나는 것을 보자 모두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옳지! 내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구나, 모두들 오금을 못 피는 걸 보니…)

《보라매》는 스스로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다음은 들판으로 내려 가 공중을 빙빙 돌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옥이네 지붕우를 한 바퀴 빙 돌면서 마당에 있는 닭들을 내려다 보았지요. 그랬더니 닭들도 모두 놀라서 지붕 밑으로 숨어 버렸답니다.

(그럼 그렇겠지. 제깐 못난 것들이 뉘 앞이라구 함부로 고개를 쳐들어.)

《보라매》는 더욱 우쭐해져서 날고 또 날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어졌답니다. 해가 서산 마루에 넘어 가자 사위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라매》는 어느 깊숙한 숲으로 들어 가 나무 가지에 앉았지요.

(에라, 오늘은 여기서 하루'밤을 새우기로 하자. 그리고 래일 날이 밝으면 다시 다른 데로 날아 가 구경하자.)

이렇게 생각한 《보라매》는 나무 가지에 쪼그리고 앉아서 밤을 새울 차비를 했습니다. 사위는 고요했습니다. 이따금 산'짐승들과 밤'새들의 울음 소리가 들려 와 좀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었으나 하루 종일 날아서 지친 몸이라 인차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찬 이슬이 내렸지요. 찬 이슬에 온 몸이 젖은 《보라매》는 오시시 떨면서 잠을 깼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보라매》는 다시 하늘로 날아 올라 산과 들을 구경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보라매》는 구경에 싫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선 먹을 것을 찾아야 했지요. 옥이네 집에서 먹고 나온 후 며칠 동안은 아무 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오늘은 우선 큰 장끼나 한 마리 잡아 먹고 보자.》

그래서 《보라매》는 그날은 아침부터 꿩 사냥을 떠났답니다. 우거진 숲과 산허리를 빙빙 돌며 아래를 눈 주어 보았지요. 그러나 온 종일 그의 눈에는 까투리 한 마리 띄우지 않았답니다. 꿩들은 모두 《보라매》의 방울 소리를 듣고 숲 속 깊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또 저물었답니다. 배가 몹씨 고파 왔으나 《보라매》는 할 수 없이 굶주린 채 숲 속에서 밤을 또 새웠지요.

이튿 날은 더 일찌기 일어나서 사냥을 떠났습니다.

《꿩이 없으면 오늘은 메추리라도 한 마리 잡아 먹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하루 종일 눈을 밝히고 숲 우를 빙빙 돌았으나 메추리는 커녕 산'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새들은 모두 《보라매》의 방울 소리에 놀라 숲 속에 숨어 움짝달삭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보라매는 다시 숲 속으로 돌아 와서 나무 가지에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배에서는 련방 쪼르룩 소리만 들려 와서 좀체로 잠을 들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다 찬 이슬까지 흠빡 맞으니 온몸이 떨려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옥이네 집에 그냥 있었더라면 배 불리 먹고 지금쯤은 포근한 잠'자리에 들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니 옥이네 옛집이 몹시 그리워났습니다. 이제라도 당장 날아 가고 싶었으나 이제는 거기까지 날아 갈 기운조차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서 날이 밝으면 산'새라도 한 마리 잡아 먹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의 나무 가지에 앉았던 부엉이가 말을 건넸습니다.

《매야, 너는 왜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리 떨고만 있니?》

《아— 말두 말아라, 난 배가 고파서 인제는 말할 기운조차 없다.》

《그러냐, 참 안 됐구나, 그럼 내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알으켜 주지. 날이 밝거던 요 아래 벼랑 우로 내려가 보아라. 그러나 방울 소리를 내여선 절대 안된다.》

그래서 《보라매》는 날이 밝자 부엉이가 대 준 곳으로 가만이 날아 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 거기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숱한 솔'새들이 재잘거리며 솔씨를 뽑아 먹고 있었답니다.

(옳지! 인젠 조놈들이라도 잡아 먹어야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보라매》는 잠시 소나무 우에 멎였다가 솔'새들을 겨누어 내리 꽂았답니다.

그러나 달랑하는 방울 소리와 함께 솔'새들은 어디론지 날아 가 버리고 《보라매》는 다시는 날아 오를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또 이런 변을 당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놈, 내가 잡아 먹으려던 솔'새들을 네가 날렸으니 이젠 네놈을 대신 잡아 먹어야겠다.》

하면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머리를 들고 나무 줄기로 기여 오르는 것이였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냥 주저 앉아 있다가는 구렁이에게 잡혀 먹힐 것이 뻔한 일이였지요. 그래서 《보라매》는 죽을 힘을 다하여 날아 오르려 했으나 발목에 매인 노끈이 나무 가지에 걸려 놔 주지를 않았습니다. 구렁이는 더욱 가까이 기여 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라매》는 정신을 잃고 날개만 푸득거렸지요. 그럴 때마다 꽁지에 달린 은방울이 달랑달랑 소리를 내였답니다.

바로 이런 때 약재로 쓸 산 열매를 따려 산으로 올라 왔던 옥이 할아버지가 방울 소리를 듣고 여기로 찾아 왔던 거랍니다.

《보라야, 하마트면 구렁이에게 잡혀 먹힐뻔 했구나. 그동안 추운 숲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니?》

하며 할아버지는 매의 발목에 달린 노끈을 나무 가지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보라매》는 기쁜듯이 날아서 할아버지의 어깨 우에 내려 앉았습니다.

《자, 나와 같이 다시 우리 집으로 가자. 옥이도 너를 퍽 기다리고 있다.》

옥이 할아버지는 《보라매》를 데리고 집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때 《보라매》는 얼굴을 수그리고 이렇게 속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쓸 데 없는 생각을 품지 말자. 할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재간을 더욱 잘 배워서 올 겨울엔 꿩을 많이 잡아서 옥이네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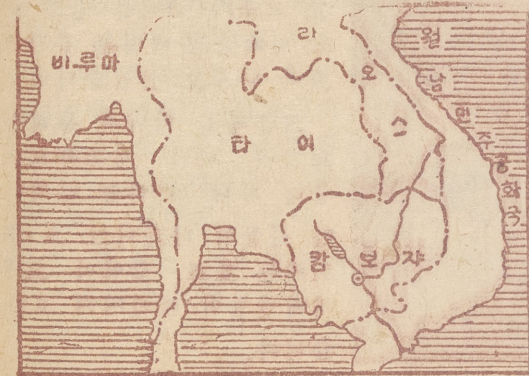
물소의 나라 캄보자

류 시 호

아름다운 섬 나라—인도 네시아를 떠난 우리는 중국 남해의 세찬 파도를 넘어 캄보쟈로 향하였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메콩강을 따라 남부 월남의 국경선을 넘어 북으로 치달아 올라 가면 무연한 들판이 펼쳐집니다.

물'줄기가 이리 저리 뻗어 나간 논들에서 농민들이 노래'소리도 구성지게 모내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가을갈이에 한창 신'바람을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안내 해 주는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였습니다.

《캄보쟈는 기후가 덥고 비가 많이 와서 1년에 농사를 세 번이나 짓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캄보쟈를 세계 3 대 곡창

(곡식이 많이 나는 창고)중 하나라고들 말하지요.》 안내원 아저씨는 자못 자랑스러운듯 무연한 논'벌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지요.

《인도지나 반도에서 〈어머니 강〉, 〈희망의 강〉으로 불리우는 메콩강은 캄보쟈 땅 한복판을 흐르면서 통레사쁘강과 합쳐 그 류역에 기름진 평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곳에서는 벼, 옥수수, 호쁘 등 농산물이 많이 나서 면적 18만 1천 평방 킬로메터에 575만여 명의 이 나라 인구가 먹고도 남습니다. 고무도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19 세기 불란서 해적선들이 메콩강으로 기여든 후부터 깡그리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안내원 아저씨의 말은 여기서 약간 떨리는듯 했습니다. 우리는 원한 많은 지난날의 사연을 토하듯 갈기를 일으키며 출렁이는 메콩강 기슭을 따라 올라 가면서 검은 구름이 뒤덮였던 이 나라의 눈물겨운 지난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처음 생긴 것은 기원 전 2 세기 경이였고 그 후 〈크메르 제국〉이 나와 14 세기 경까지 강대한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863년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다음부터 우리 나라 인민들은 식민지 멍에를 뒤집어 쓰고 비참하게 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안내원 아저씨는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한듯 주먹을 쥐여 가며 우리에게 이야기 해 주는 것이였습니다.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빼앗은 그날부터 이 메콩강 우에는 벼'가마니, 목재, 광물을 실은 도적배들의 저주로운 고동 소리가 끄칠 사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제 2 차 대전 시기에는 왜놈들이 더러운 구두'발을 들여 놓았고 왜놈들이 망한 다음에는 불란서 침략자들이 또다시 캄보쟈에 기여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벌써 과거의 캄보쟈 사람들이 아니였습니다.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몸부림 쳐 일어나 싸운 캄보쟈 인민들은 1953년에 드디어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나라 인민들은 이처럼 오랜 세월을 두고 제국주의놈들의 식민지 종살이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제국주의 원쑤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였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략탈의 피 묻은 손을 내 밀고 있는 미제를 증오하면서 이 나라의 수도 프놈펜에 이르렀습니다.

프놈펜은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큰 도시인데 화려한 현대적 건물과 함께 불교 사원(절'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중에도 중이 많았는데 특히 우리 눈에 띄운 것은 두루마기 같은 중 옷을 입은 아이들이였습니다.

이 나라의 국교는 불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었고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절'간에 드나든다고 합니다.

25 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를 간신히 참아 가면서 프놈펜 중심 거리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의 원조를 반대한다!》, 《양키는 물러가라!》고 소리 높이 웨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미국의 《원조》를 안 받기로하고 미국 대사를 내 쫓기로 한 것을 모두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원조는 도와 주는 척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등에 칼을 찌르는 것과 같다.》는 캄보쟈의 국가 원수 시하누크가 한 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미제를 반대하여 군중집회를 열고 있는 캄보쟈 수도 프놈펜 시민들

거리마다 《양키는 물러가라!》는 포스타를 내 붙이고 모두가 주먹을 움켜 쥐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었습니다.

프놈펜을 떠나서 통레사쁘강을 따라 서북쪽으로 올라 가니 이따금 나지막한 산들이 나타나고 그 주위에는 호쁘 밭이며 고무 재배원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이 나라 어델가나 물'소

가 많은 것이 특징이였지만 이곳에서는 더욱 많은 물'소들이 눈에 띄였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흥미를 끈 것은 몸'집이 큰 물'소 목 우에 아이들이 올라 타서 물'소를 잘 몰고 다니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물'소는 무척 순한 모양이지! 아이들이 저렇게 마음 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보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물'소 곁으로 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이여서 그런지 물'소는 떠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순하게 대하고 말도 잘 듣지만 어른들의 말은 잘 듣지 않는단다. 더구나 매질을 하거나 힘 내기로 물'소를 부리려면 한사코 말을 듣지 않지 뭐…》

한 열서너살 쯤 되여 보이는 아이가 이렇게 물'소의 성질을 이야기 하는 것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와 캄보쟈 사이에 령사 관계가 맺어져 있고 친선적인 왕래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캄보쟈 아이들과 서로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이 매우 정다왔고 기뻤습니다.

《너희 나라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다 학교엘 다닌다지! 너희들은 참으로 좋겠다…》

부러운 듯 그는 말하더니 뿔이 길다랗게 량 뒤주가리로 드리워진 물'소의 머리를 시름 없이 어루만지면서 계속 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였습니다.

《물'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친한 동무처럼 아주 순하지만 사자나 범과 같은 무서운 짐승과 맞서서 싸울 때에는 이만 저만 사납지 않아,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물'소를 무척 사랑한단다. 물론 부림'소로 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캄보쟈에는 33만 6천 두 이상의 물'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소는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고 있는 이 나라 인민들의 기상을 그 대로 말해 주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확확 안겨 오는 열풍이 어느 정도 사그러질 무렵 우리는 이 나라의 유명한 호수인 통레사쁘호에 이르렀습니다.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면서 일망 무제하게 펼쳐진 이 호수는 바다와도 같이 넓였습니다.

이 호수는 경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천연 어장으로서 물'고기가 많이 나는 데도 유명합니다. 매년 4월~12월까지의 홍수 기간에 메콩강 하류로부터 물'고기들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자연 사료들이 많이 실려 온답니다. 그리하여 통레사쁘호와 메콩강 하류 지역의 매 평방메터당 물'고기 생산량은 세계 그 어느 천연 양어장보다 높답니다. 캄보쟈에서는 이러한 천연 어장에서만도 매년 10만 톤의 물'고기를 잡아 내고 있답니다.

저녁 노을이 깃드니 호수의 물'고기들이 여기 저기에서 펄쩍펄쩍 뛰여 오르고 고기'배들이 천천이 호수'가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정적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나라 려행의 마지막으로 캄보쟈의 옛 수도 앙크르에 갔습니다.

여기에는 옛날 《크메르 제국》 당시의 찬란한 문화 수준을 그 대로 보여 주는 유명한 《앙크르 왓트》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의 건물이 얼마나 웅대한지 그 주위 길이만 해도 3천여 척이나 되였습니다. 이 큰 절'간을 나무 하나 들이지 않고 순전히 돌로만 지었는데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조각물들로 장식되여 아주 우아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훌륭한 문화 유산과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진 이 나라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서 벗어 나서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상 깊은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물'소에 함부로 덤벼 들다가 녹아난 짐승들처럼 미제국주의자들도 이 나라에 더는 침략과 략탈의 발을 붙이지 못하리라!

우리 나라 옛 과학자

탁월한 농학자이며 생물학자인 박 세당 선생

김 일성 종합 대학 생물 학부

학사 탁 운한

박 세당 선생은 17 세기 탁월한 농학자로서 우리 나라 농업과 생물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선생은 1703년 일흔 다섯 살로 자기 생애를 끝마칠 때까지 일생을 거의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힘을 학문 연구 사업에 바쳤습니다.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매우 용감하였고 무슨 일이든지 깊이 생각해서 행동하였습니다. 선생은 무엇이든 관찰할 때는 그것을 무심히 보지 않고 반드시 그 리치를 알기 위하여 하나 하나 따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선생은 공부를 해도 다만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생께서는 책에 써 있는 것이 한갓 지식으로서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책에 써 있는 것들의 리치를 깊이 따지고 그것을 실천 생활에 옮기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그 때까지 농업에 관하여 우리 선조들이 써 놓은 책과 다른 나라에서 써 놓은 책들을 모조리 연구하고 선진 농업 기술을 보급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선생은 농업 기술의 연구와 선진 농업 기술을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책상 머리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선생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벼슬을 버리고 서울을 떠나 농촌으로 내려 갔던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 간 선생은 해마다 농사철에는 늘 논밭에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날을 보내면서 땅이 기름졌는가, 메마른 땅을 어떻게 기름지게 하겠는가,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농작물을 재배해야 수확을 많이 낼 수 있겠는가 하고 제자들과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구한 것을 가지고 선생은 농민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은 제자들과 함께 과수, 약초 등의 재배에도 힘 쓰면서 새로운 리론을 얻어 내기에 온갖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이 밖에도 선생은 가축 기르기, 농산물 가공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깊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선생은 과수 재배에서 우량 품종을 만들기 위하여 접목에 대한 연구에도 많은 힘을 돌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선조들이 실시해 오던 접목 방법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이를 보급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이와 같이 선생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에 대한 리론을 새로 만들기에 온갖 힘을 기울였습니다. 선생의 이 연구 성과는 《색경》이라는 농학 책에 모두 실리였습니다.

《색경》이란 것은 선생이 말한 바와 같이 《농사 짓는 데 기준되는 방법》입니다.

선생이 써 놓은 《색경》은 우리 나라 농학 책 중에서 가장 우수한 책의 하나입니다.

선생은 《색경》의 머리'말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일찌기 벼슬할 때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 벼슬을 그만 두고 농사를 하려고 생각한 지가 오래였다. 왕궁 내의 도서실에 있는 책들을 읽고서 내 스승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여 즉시로 이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색경》은 오직 인민들의 생활을 리롭게 할 목적으로 쓴 것이요, 또 농업의 모든 부분을 담은 많은 내용을 가진 농학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농학 책은 농업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보아서도 귀중한 것들을 밝혀 낸 과학 서적의 하나입니다.

생물학에 남긴 한 두가지 실례만 보더라도 선생의 뛰어난 공적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생물학을 연구하는 데서 기본으로 되는 문제의 하나는 모든 생물체가 그가 사는 주위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옳게 알아내는 데 있습니다.

선생은 모든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나무가 원래 서 있었던 남쪽과 북쪽을 표해 놓았다가 심어야 할 것이며 만일 남북을 표한 대로 심지 않는다면 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무는 남북을 가려 심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물체가 본래 살던 주위 환경과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그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힌 것이며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도 어린 것은 그 조건에 쉽게 적응되여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됩니다. 아직 생물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17 세기에 선생이 벌써 이러한 훌륭한 결론을 내린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구라파에서는 20 세기 초에 바로소 이러한 결론을 내 놓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선생의 리론이 얼마나 훌륭하였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은 이러한 리론으로부터 또한 접목에 의하여 새 품종을 만들어 내는 데서도 귀중한 리론을 내 놓았습니다. 즉 같은 식물체라 하여도 식물체의 웃 부분과 밑 부분은 그 질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옳게 밝혀 냈습니다.

선생은 접할 때 밑둥에서 나온 가지를 접 가지로 하면 5년 후에야 바로소 열매를 맺게 되나 늙은 웃 가지를 접가지로 쓰면 3 년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리론은 현대 생물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가 접목할 때 질 좋은 과실 나무를 얻어 내자면 어떠한 가지를 접가지로 쓸 것인가, 그리고 빨리 열매를 맺게 하자면 어떤 접가지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옳게 밝혀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선생은 접목 연구에서 많은 귀중한 리론들을 내 놓았습니다. 선생의 이 귀중한 리론들은 그 후 후대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였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선조들 중에 이러한 훌륭한 농학자이며 생물 학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한한 자랑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선조들이 이룩한 훌륭한 업적을 이어 받아 이를 더욱 빛나게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응급 치료법 몇가지

영철이네 분단 동무들이 행군을 떠나는 날이였어요. 모두들 꼬마 진료소에 들려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건강한 몸이여서 꼬마 의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답니다.

꼬마 의사는 분단 동무들에게 행군 할 때 흔히 나무 가지에 피부가 찢기우거나 돌에 부딪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모두 주의하라고 하면서 혹 상처가 나면 어떻게 응급 처치를 하는가 하는 방법 몇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 나는 것을 멈추는 방법

동맥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기 위해서는 상처의 웃쪽 동맥을 손가락으로 꽉 눌러야 한다. 상처를 입은 다리나 팔은 혈압을 낮추기 위하여 높은 곳에 올려 놓아야 한다. 피가 많이 흐를 때에는 고무줄로 상처 웃쪽 동맥을 꽉 졸라 매거나 고무줄이 없을 때에는 손'수건, 허띠 등으로

졸라 맨 다음 곧 의사에게 보이여야 한다.

정맥 출혈은 피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상처를 웃쪽으로 올리고 그것을 붕대로 잘 감으면 된다. 그러나 피가 많이 날 때에는 동맥에서 흐르는 피를 멈출 때의 방법 대로 하여야 한다.

타박상

타박상을 입었을 때에는 옥도정기를 바르거나 또는 상처 자리에 찬물에 적신 수건을 댄다. 수건이 더워지면 다시 찬물에 적시여 대군한다. 이렇게하여 3~4 일 지난 다음에는 타박상을 입은 곳을 손으로 가볍게 비벼야 한다. 다음은 혈액 순환이 잘되게 더운 물에 씻는 것이 좋다.

뼈가 부러졌을 때

뼈가 부러졌을 때에는 부러진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부러진 뼈의 량쪽 끝이 서로 마주 치지 않게 두 개의 나무'대 혹은 널쪼각을 좌우 쪽에 대고 붕대로 감는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곧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기절 (실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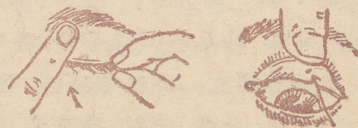
사람이 기절하면 얼굴이 하얗게 되여 식은 땀을 흘리면서 정신을 잃게 된다.

이 때에는 환자의 발이 머리보다 높은 곳에 놓이도록 눕히고 얼굴에 찬물로 적신 수건을 댄다. 그리고 암모니아수에 적신 솜을 코에 대여 냄새를 맡게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그때 허띠나 단추, 옷고름을 풀어 놓는 것이 좋다.

눈에 든 티를 내는 방법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티 든 눈을 사분히 감게한 다음 눈가풀 우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서 한 손으로 속 눈섭을 쥐고 눈까풀을 우로 제친다. 티를 발견하면 깨끗한 솜이나 물에 축인 천으로 티를 묻쳐 낸다.

※ 티는 흔히 눈까풀 속에 달라 붙어 있다.

련재 그림

오누이

(3 회)

글—허 일 그림 맹 동원

㉝ 서로 헤여져 살게 된 오누이는 주인들의 눈을 피하여 보름날 밤이면 바다가 벼랑 바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늘도 봉일이는 애타게 봉숙을 기다리며 노래 부른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두둥실 높은 달아
거울 같은 네 얼굴에 아로 새겨 비쳐다오.
귀여운 내 동생 가엾은 봉숙이,
오늘은 모진 매에 몇 번이나 울었나
이 오빠 보고 싶어 몇 번이나 울었나…

㉞ 이 때 술에 취한 선주와 감독놈이 떠들석하며 지나 간다. 선주놈은 어로공들을 더 착취하기 위해 낡은 그물을 찢고 벌금을 받아 내며 말썽을 부리는 사람은 바다에 처넣으려고 계교를 꾸민다. 봉일이는 바위 뒤에 숨어서 엿듣고 치밀어 오르는 분통을 참지 못해 두 주먹을 불끈 쥔다.

㉟ 퍽그나 밤이 깊어서야 봉숙이는 겨우 빠져 나와 숨가삐 뛰여 온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다. 봉숙이는 빼앗겼던 오빠의 모자를 잘 간직했다가 다시 오빠에게 돌려 준다. 봉일이는 뜻밖의 일이라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른다.

㊱ 저 멀리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다 오누이는 바위 우에 서로 나란이 앉아 그간 고생하던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어머니를 그린다. 봉일이는 주인놈의 집에서 뛰여 나와 멀리 서울 감옥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 가자고 한다. 봉숙이도 기뻐하며 《난 어머니만 보게 된다면 걸어서라도 갈래.》하고 당장 떠나자고 한다.

㊲ 성호 아저씨가 오늘도 오누이를 위해서 먹을 것과 약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 오셨다. 봉일이는 아까 엿들은 선주놈의 흉계를 대준다. 성호 아저씨는 증오에 찬 어조로 말한다. 《네놈이 몇 날이나 더 사나 두고 보자!》고. 그런데 왜 그런지 오늘은 성호 아저씨의 행동이 울분에 차 있음을 봉일이는 느낀다.

㊳ 《왜 그러세요? 대주세요?》 하고 졸라대는 봉일의 지극한 격정에 못이겨 성호 아저씨는 오누이에게는 감추고 지내려던 일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봉일 어머니가 감옥에서 일본놈들의 모진 매질과 굶주림으로 돌아 가셨다는 것이였다.

㊴ 오누이는 그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너무도 그리워하던 어머니였고 생명처럼 믿어 오던 어머니였기에…그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몸부림친다.

못 가요 못 가요, 엄마는 못 가요.
아버지도 없는데 우리 두고 못가요.
엄마와 같이 살날 손꼽아 세였는데
엄마와 손목 잡고 학교 갈 꿈꿨는데
못 가요, 못 가요, 엄마는 못 가요. 우리 우리 오누이 어찌 살라 가시나요.

㊵ 성호 아저씨는 슬픔에 잠겨 있는 오누이를 다정하게 그러나 씩씩하게 얼싸 안으며 《울고만 있어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 오시지 않어! 원쑤를 갚으려면 굳세야 돼.》하고 일깨워 준다. 봉일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주세요!》 하며 이를 악문다.

㊶ 그날 밤, 성호 아저씨는 왜놈들을 조선 땅에서 몰아 내고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 간난신고를 이겨내며 싸우고 계시는 김 일성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면서 왜놈들이 망하고 그분들이 조국에 돌아 오셔야 마음껏 학교에도 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봉일이는 그날이 올 때까지 바다에 나가 굳센 어부가 되여 아버지의 원쑤를 갚겠다고 결의를 다진다.

㊷ 손발이 꽁꽁 얼어 드는 추운 겨울날 배에서 일을 하게 된 봉일이는 오늘도 아저씨들을 위해서 불을 잘 피워 놓는다. 아저씨들은 《봉일이가 배에 오는 날부터 배에 뜨끈한 아래목이 생겼거던…》 하며 좋아 하신다. 봉일은 이렇게 배에서 아저씨들의 일을 돕는다.

⑬ 감독놈은 힘겨운 일을 가리지 않고 봉일을 부려 먹으면서 일이 자리가 나지 않는다고 호령질이다. 특히 봉일이가 불을 피우게 되자 어로공 아저씨들이 언 몸을 녹이느라고 시간을 랑비한다고 못 마땅해 하며 불을 피우지 말라고 때린다.

⑭ 그러나 봉일이는 몰래 또 피운다. 한편 감독놈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재빨리 그물을 칼로 짼다. 그리고 벌금을 어로공들에게 들씌울려고 한다. 선창에서 나오다가 이것을 본 봉일이는 왜 그물을 찢느냐고 대든다. 감독놈은 자기 죄가 탈로 될가 두려워서 어로공들에게 대주면 당장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며 돈까지 준다

⑮ 봉일이는 다시 불을 피워 가지고 어로공 아저씨들을 찾아 다니며 손을 녹이게 한다.

이것을 본 감독놈은 불통을 빼앗아 바다에 처넣고 봉일이를 때리려한다. 성호 아저씨는 감독놈의 손목을 잡고 못 때리도록 비틀어 버린다. 감독놈은 갑판 우에 나뒹군다.

(다음 호에 계속)

보건성 중앙 피부성 병원 원장 교수 리 성숙

우리 나라 맑은 하늘 아래에 비치는 해'빛은 무한히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이 화려한 해'빛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들이 자라 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빛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을 죽이는 작용을 하며 우리 주위를 깨끗이 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례를 들면 가래에 섞여 나오는 폐'병균, 장티브스의 원인으로 되는 장티브스균, 또는 적리의 원인으로 되는 적리균 같은 것도 해'빛에 쪼이면 몇 분 또는 몇 시간 못 가서 죽어 버립니다. 해'빛에 무슨 힘이 있는가구요?

해'빛에는 자외선이라는 균을 죽이는 강한 광선이 들어 있지요.

동무들은 비 오는 날에 무지개를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지개에서 보는 붉은 빛, 노란 빛, 자지'빛 등 여러 가지 빛'갈들 중에서 자지' 빛 또는 그 밖에 있는 일부 보이지 않는 광선을 합하여 이것을 자외선 (또는 화학선이라고도 한다.)이라고 합니다. 이 자외선이 그처럼 균을 죽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에서 보는 붉은 빛'갈 또는 그 밖에 일부 광선이 합친 것이 적외선 (또는 물리선이라고 한다.)인데 이것은 자외선처럼 균을 죽이는 힘은 그리 강하지 않으나 우리에게 더운 열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적외선과는 달리 덥지 않으며 파장이 짧기 때문에 쉽게 먼지나 수증기 방울 등에 흡수되여 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빛 안에 들어 있는 자외선을 잘 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와 같이 공기가 맑고 특히 봄날 습기가 적고 공기가 마른 때가 좋습니다.

이와 같은 해'빛은 피부의 힘을 강하게 하며 몸 안에 들어 있는 내장과 신경 등을 튼튼히 하며 따라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해'빛은 우리의 뼈를 굳게 해 주는 비타민 《디》를 만들어 줍니다. 때문에 갓난아기들이 해'빛을 제대로 받지 못 하면 구루병 (뼈가 물러서 다리가 휘는 병)에 걸리는 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빛은 또한 상처가 있을 때 그에 작용하여 상처를 빨리 회복하게 합니다. 이것은 해'빛에 들어 있는 자외선이 균을 죽이는 데만 관계 되는 것이 아니라 해'빛 전체의 작용으로 피부에서 피가 잘 돌게 하며 따라서 영양을 온 몸에 더 잘 공급하게 하고 나쁜 것들을 빨리 소변으로 내보내 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해'빛은 사람의 몸에 작용하여 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장기들을 더 잘 움직이게 하면서 우리들의 건강을 더 좋게 또 우리 기분을 더 명랑하게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해'빛을 잘못 쪼이면 몸에 오히려 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빛을 너무 강하게 쪼였을 때에는 피부 세포에 해를 줍니다.

해'볕에 너무 쪼였을 때 피부가 빨개지면서 내부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해'빛을 잘 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 봄철은 공기가 맑고 수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해'빛을 몸 건강에 리용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우리들은 봄철부터 해'빛을 잘 리용하면서 여름철, 가을철에 걸쳐서 자기 몸 단련과 건강에 힘 씁시다.

그러면 피부를 어떻게 단련하여야 할 것인가?

본래 피부에는 많은 신경과 혈관, 림파관들이 있으면서 밖에서 일어 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속에 있는 각종 내장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가지면서 자연 변화에 맞게 우리 몸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동무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김 봉한 박사가 새로 발견한 경락 계통은 특히 피부 안에 많이 들어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외부 환경과 접촉되여 있고 내부 장기를 통일시키면서 중요한 자기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잘 단련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며 오래 사는 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피부의 단련 법에는 공기를 리용해서 단련하는 법, 해'빛을 리용해서 단련하는 법, 랭수를 리용해서 단련하는 법, 모래나 바다'물을 리용해서 단련하는 법, 또한 피부를 잘 비벼 주면서 단련하는 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빛을 리용해서 단련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몸에 해'빛을 쪼일 때는 우선 머리를 수건 또는 모자 등으로 잘 감싸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은 머리칼에 해'빛을 쪼이면 몹시 피부가 더워지면서 속에 나쁜 영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해'빛을 쪼일 때는 처음에는 피부의 적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간도 차츰 길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리에서부터 시작하여 5~10 분간 쪼이고 매일 5 분 정도씩 시간을 늘쿠면서 차츰 팔, 허리, 배, 가슴 등 부위에로 넓혀 가야 합니다.

너무 갑짜기 많이 쐬여 피부가 너무 빨개지는 것은 좋지 않으며 될 수 있는 대로 그리 빨개지지 않으면서 차츰 검은 빛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의하여야 할 것은 해'빛으로 피부를 단련할 때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며 어지러워지고 기침이 날 때는 곧 이를 중지하고 이런 증상이 없어진 다음 다시 조금씩 시작하여야 합니다.

또 해'빛을 쪼인 후에는 30 분~1 시간 정도 자리에 조용히 누웠다가 일어 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또 충분히 숙련된 후에는 운동을 하면서 피부의 단련과 동시에 전체 몸 속에 들어 있는 장기들의 기능을 높여 주는 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 해'빛을 쪼인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물로 깨끗이 몸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다만 피부를 깨끗이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단련과 몸의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가지게 합니다.

해'빛으로 피부를 단련하는 것은 다만 이처럼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하는 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일상적으로 밖에 나가 해'빛을 받으면서 뛰여 놀며 야유회, 등산, 해수욕 등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상적으로 몸에 해'빛을 많이 받도록 힘쓰며, 학교나 가정에서 옷, 이불 같은 것들을 자주 해'볕에 쪼여 항상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공부해 나갑시다.

영식이네 집에서는 벌써 3 년째나 금붕어를 기르고 있다.

영식이는 금붕어가 알을 낳으면 새끼를 깨워 동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지만 도무지 알을 낳지 않았다.

어느 날 영식은 금붕어를 많이 기르고 있는 동평양 유원지 양어장 관리원 아저씨를 찾아 갔다.

《알받이는 무엇으로 만들어 넣었니?》

찾아 온 사연을 듣고 난 아저씨는 영식이에게 이렇게 물었다.

《알받이라니요?》

영식이는 처음 듣는 말이여서 어리둥절해졌다.

《알받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걸 보니 알받이를 안 만들어 준 게 분명하구나. 그러니 알을 낳을 탁이 있니.》

아저씨는 벙실벙실 웃으시며 금붕어를 키우는 방법을 영식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금붕어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알을 낳는데 보통 한 마리가 2만 개의 알을 낳는다.

금붕어를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알받이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알받이는 잔디 뿌리나 수양버들 뿌리 같은 것을 깨끗이 씻어 용기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넣으면 된다. 만일 둥근 용기에서 알을 낳게 한다면 잔디 뿌리 같은 것을 가는 새끼로 묶어 5 cm 물 깊이에 넣어 주면 된다. 알을 낳을 때 사람이 어항에 가까이 가거나 금붕어를 놀래워서는 안 된다.

금붕어가 알을 낳으면 알받이는 곧 꺼내고 다른 알받이를 넣어 주어야 한다. 알받이를 꺼내지 않으면 엄지 고기들이 알을 다 먹어 버린다.

꺼낸 알받이를 다른 그릇에 넣어서 4~5 일 두면 알에서 새끼 고기가 나온다. 알을 깨우기에 적당한 온도는 20°C이다.

알에서 갓 깨여난 새끼 고기는 자기 영양 주머니에 있는 영양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40~50 시간을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후부터는 사료를 주어야 한다.

사료는 누에 번데기, 메뚜기, 실지렁이, 싸그쟁이, 과자, 빵들이 좋다. 그 중에서도 새끼 고기 사료로서 제일 좋은 것은 싸그쟁이다. 싸그쟁이가 없으면 계란의 노란자위가 좋다.

계란 한 알이면 5만 마리의 금붕어를 하루'동안 (하루에 3회)먹여 살릴 수 있다.

사료를 먹일 때 삶은 노란자위를 가제천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고 물'속에서 흔들면 된다. 사료를 먹이고 찌꺼기가 남은 흐린 물을 그 대로 두면 고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가라 주어야 한다.

2 개월이 되면 고기는 2cm 정도로 자라고 색도 변하게 된다.

한 마리의 금붕어를 키우자면 3~4 릿터의 물이 보장되여야 하나 키우는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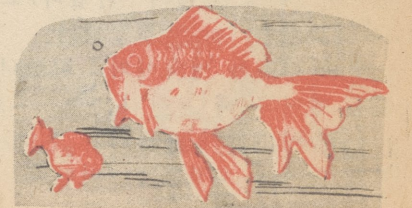
지금 상점에서 팔고 있는 어항 (고기를 넣어 기르는 그릇)에는 새끼 고기라면 3~4 마리 키울 수 있고 2 년생은 2 마리를 넣어 키우는 것이 좋다.

물은 강물이 좋다. 그러나 수도'물을 리용할 때에는 반드시 24 시간 가량 받아 두었다가 사용해야 한다.

물은 겨울에는 3 일에 한 번 봄과 가을에는 2 일에 한 번, 여름에는 매일 갈아 주어야 한다.

특히 금붕어가 코드레 (입을 물 우로 내보내는 것)를 하면 인차 물을 갈아 주어야 한다. 그것은 물이 어지러워지고 금붕어가 숨 쉬는 데 필요한 산소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물을 갈아 줄 때는 이미 있던 물과 새 물의 온도의 차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금붕어를 손으로 쥐여 내서는 안 된다. 물은 그릇에서 절반 이상 쏟아 내고 새 물을 넣는다.

영식이는 관리원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붕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하는 많은 지식을 배웠다. 그는 아저씨가 가르친 대로 해 보리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 왔다.

편집부는 이번 호부터 《말둥이》를 《남이》로 《글둥이》를 《옥이》로 고칩니다.

우리는 평북 어느 마을에 이르렀어요.

마을 한 가운데로 걸어 가는데 《오만,형이와 상구 안 오니?》(《어머니, 형님이 왜 아직 안 오실가요?》 하는 뜻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겠지요.

남이와 옥이는 깜짝 놀라 멈칫 섰습니다. 가만 보니 그게 순봉이네 집이였어요.

아니! 어머니 보고 《안 오니?》 하고 말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장인 명호네 집을 찾아 갔습니다. 거기에는 마침 영준이, 상철이, 귀남이, 성민이랑 모여 숙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이는 순봉이네 집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하면서 반 동무들에게 우리가 말하는데서 지켜야 할 례절에 대하여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는 다 웃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조선말은 웃사람한테 하는 말과 아래'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 똑똑히 나뉘여 있습니다. 가령 명호가 동생 명숙이한테 말 할 때에는 〈난 학교에 가겠다〉고 하지만 어머니한테 말 할 때에는 〈어머니 저는 학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보세요, 웃'사람 앞에서는 〈나〉도 〈저〉 라고 말하며 〈가겠다〉고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명호가 명숙이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 봅시다.

〈명숙아, 저기 순돌이가 온다〉, 〈명숙아, 저기 아저씨 오신다〉, 〈어머니, 저기 순돌이가 옵니다〉, 〈어머니, 저기 아저씨 오십니다.〉

순돌이가 오는 것을 명숙이한테는 〈온다〉 라고 하고 어머니한테는 〈옵니다〉라고 합니다.

또 아저씨가 오시는 것은 명숙이한테는 〈오신다〉 라고 하고 어머니한테는 〈오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숙이한테 말할 때는 〈오ㄴ다〉 〈오시ㄴ다〉라고 〈ㄴ다〉를 끝에 붙였는데 어머니한테는 〈오ㅂ니다〉, 〈오시ㅂ니다〉라고 〈ㅂ니다〉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명호(말 하는 사람)가 누구에게 말 하는가에 따라 가령 명숙이(아래'사람)일 때와 어머니(웃 사람)일 때를 갈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옥이는 성민이 책 갈피에 까인 편지를 보고 《하하》 웃으며 《애들아, 이것 좀 봐라!》하며 그것을 빼 내 놓았어요. 거기는 이렇게 씌여 있지 않겠어요. 《존경하시는 로동자 아저씨들에게 드립니다…》

아이들은 모두 그걸 읽고는 키득키득 웃는데 남이가 또 이야기를 시작하였어요.

《〈시〉는 어느 때 쓰이는가? 〈존경한다.〉 —누가 존경하는가? 〈드린다〉—누가 드리는가? 바로 성민 동무가 로동자 아저씨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시〉를 붙이니까 성민이는 제가 저를 높였습니다. 그러니 아주 우습게 되였지요. 가령 〈밤과 낮을 이어 가며새로운 기계를 자꾸자꾸 만드시는 로동자 아저씨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만드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다 로동자 아저씨들이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꼭 써야 합니다.》

남이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명호가 한마디 말 했습니다.

《저 싸리재에 있는 영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읍에 갔다 왔소?〉하더라, 그것도 정말 례절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

《옳아요. 그뿐인줄 압니까? 순회는 〈상철네 오만 순철이 빨리 오라구 그러라요〉 했답니다. 〈같이 가자요〉, 〈빨리 오라요〉 하는 것은 웃사람을 높이는 말로는 다 모자라는 말들입니다. 〈같이 가셔요〉, 〈어서 오십시요〉하는 것이 옳은 말이예요.

우리 조선말에는 그 밖에도 웃사람을 높일 때 쓰는 말이 따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철아, 밥 먹어라.〉

〈아버지, 진지 잡수십시오.〉

보세요, 〈밥〉—〈진지〉 〈먹는다〉—〈잡수신다〉 이렇게 웃어른에게 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또 영희야 〈떠들지 말아, 애기가 잔다.〉

〈영희야 떠들지 말아, 할아버지 주무시는데〉 여기서도 〈잔다〉—〈주무신다〉라고 서로 다른 말을 씁니다.

또 〈순희야, 우리 영희 너의 집에 있지?〉

〈순희야, 우리 형님이 너의 집에 계시던?〉 사람이 어디 어디에 〈있다〉는 말도 웃사람에게 쓸 때는 〈계시다〉라고 씁니다. 〈우리 선생님은 재미 있는 책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어머니는 집에서 일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 받는 〈말〉도 웃어른이 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꼭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알아야 할 것은 〈선생님이 말씀하신다〉고 웃사람이 말하는 것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저는 선생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처럼 웃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경우에도 〈말씀〉을 쓰고 꼭 〈드리다〉를 씁니다.

이 때에 잊지 말 것은 웃사람에게 향해서 말할 때와 여러 사람을 향하여 말할 때만 이렇게 쓴다는 것과 〈말씀〉 밑에다 〈하다〉를 붙여서는 절대로 안 되고 꼭 〈드리다〉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자랑에 대하여 여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말씀 드렸더니 꼭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때에 〈말씀 드리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하다〉 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여 우습게 됩니다.》

㊷ 원은 하는 수 없이 평 정에게 호령쳤다.

《네 놈이 애무하게 남을 고소한 것이 아니냐? 너의 신분부터 말해라!》

평 정은 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사실 대로 말했다.

《저는 한갖 농촌의 보잘 것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여 난 몸입니다.

어릴 적부터 고된 일에 쪼들려 글도 잘 배우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벼슬도 못 하고 등뼈가 휘도록 수다한 식구를 데리고 제 손으로 벌어 먹고 살아 옵니다.

저 서 대쥐가 훔쳐 간 알밤 50여 섬은 금년 같은 흉년을 당할가 미리 생각하고 매년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절약해 놓은 식량입니다.

그그저께 저녁 저희들이 난생 처음으로 잔치를 차리고 노는 틈을 타서 서 대쥐는 알밤 50여 섬을 훔쳐 갔습니다.

저희들이 입고 있던 갖옷과 조상때부터 전해 오던 보물까지도 훔쳐 갔습니다.

도적 맞은 이튿날, 저의 손주녀석을 서 대쥐의 석굴로 보내여 알아 보고 고소한 것입니다.》

㊸ 성품이 본시 선량한 다람이 평 정은 여러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몇 마디 말했을 뿐이다.

원은 어느 편 말이 옳은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이 때 서 대쥐는 손과 발에 쇠고랑이가 채워 있었으나 마구 평 정을 칠듯이 몸뚱아리를 뒤틀며 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저놈, 평 정은 판판 거짓말입니다.

원님! 제가 저놈의 죄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놈의 무리들은 봄, 여름, 가을철이면 백성들이 땀 흘려 지어 놓은 곡식을 사방 찾아 싸다니며 훔쳐 먹다가는 겨울만 되면 절름발이, 벙어리, 귀머거리, 외눈깔이, 늙다리까지도 바가지를 들고 동냥질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놈들 장정들은 도적질을 직업으로 삼습니다.

저의 집에도 매년 저놈들이 비럭질을 오기에 그때마다 식량을 몇 섬씩 주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며칠 전 일입니다. 글쎄 저놈의 무리들이 그 은혜도 모르고 저의 집 창고를 뚫고 식량을 몇십 섬 훔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 정에게 단단히 충고를 주었더니 도리여 저를 고소하여 자기의 죄를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하고 분한 가슴을 누를 수 없사와 차라리 여기서 죽고만 싶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옳고 그름을 참대쪽 짜개듯 하시는 원님께서는 이 가슴 아픈 사정을 살펴 주소서.》

㊹ 원은 말 많은 서 대쥐의 거짓말을 참말로 듣고 말이 적은 평 정의 참말을 거짓말로 들은 모양이였다.

원의 눈에는 서 대쥐를 측은히 여기고 동정하는 빛이 흐르고 있었다.

말을 마치고 원의 얼굴을 바라보던 서 대쥐는 옷깃을 다시 여미고 자리를 고쳐 앉아 뾰죽한 주둥이를 오물오물, 두 귀를 발족발족 두 눈을 깝박깝박하다가 이번에는 눈물을 길게 짜서 주루룩 두 뺨으로 흘러내려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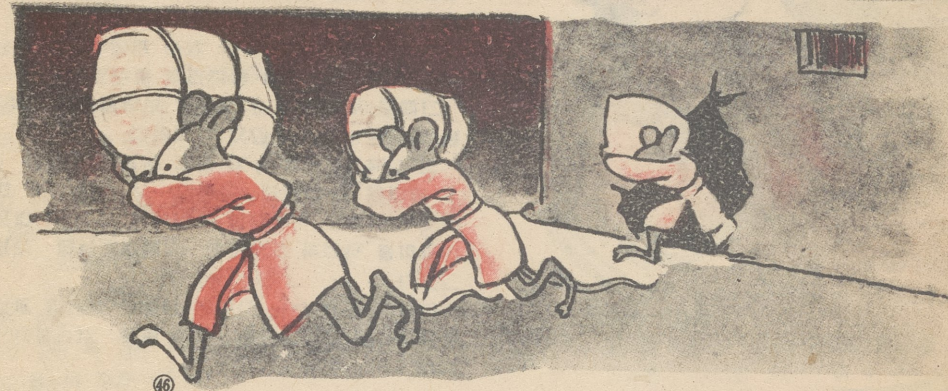
이것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고 앉았던 원은 형리더러 포승도 풀어 주고 손과 발의 쇠고랑도 벗겨 주게 하였다. 그리고는 술까지 대접하여 너무 분해하지 말라고 위로한 뒤에 소토산 석굴로 돌려 보냈다.

㊺ 한편 다람이 평 정은 어떻게 되였을가?

원은 서 대쥐를 놓아 보내고 도리여 평 정더러 도적놈이라 크게 꾸짖고 처벌하였다.

《도대체 땅 많고 돈 많고 거기다 량반의 자손인 서 대쥐가 어찌하여 너 같이 가난한 상놈의 량식을 훔쳤겠느냐? 네놈이 거짓말로 남을 고자질한 나쁜 놈이다. 척 들어만 봐도 알 일이로다.

이제 네가 서 대쥐의 량식을 훔쳐 간 사실이 드러났으니 너는 응당 큰 매를 스므 대 맞고 족속들을 데리고 멀리 인적 없는 산'골짜기로 정배 가야겠다!》

곁에 있던 형리들은 원의 말을 받아 평 정에게 매를 주고 또 그와 그 족속들까지 먼 산'골짜기로 정배를 보냈다.

㊻ 무죄로 판결을 받고 소토산 석굴로 돌아 간 서 대쥐는 꺼리낌 없이 도적질로 일을 삼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 후부터는 아무 일도 안하고 남이 벌은 곡식과 물품을 더 잘 훔쳐다 먹고 쓰면서 살아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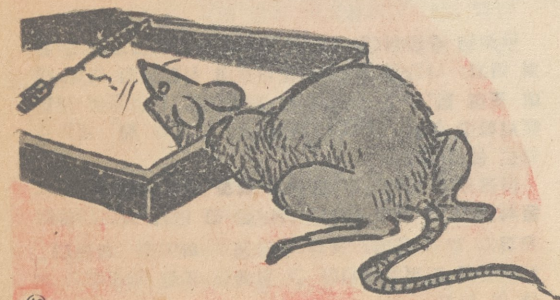
어느 도, 어느 군, 무슨 리이건 그의 무리들이 없는 데가 없이 많이 퍼지고 흩어져 세상 만물에 해를 끼치고 있다.

우로는 수라상(임금의 밥상)에 놓인 반찬까지 훔쳐 먹고,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의 식량까지 축을 내며 또한 톱'이와 송곳'이를 벼르노라고 외국에 보낼 문서책도 쏠고, 공주(임금의 딸)의 시집 갈 치마까지도 쏠고 있다.

아래로는 백성들이 조상을 위해 제물로 차려 놓은 음식도 먼저 훔쳐 먹고, 가난한 집 단벌 옷, 나들이 옷까지 마구 쏠며, 못된 전염병도 퍼뜨려 놓는다. 도적질도 도적질이지만 그 심술이 또한 괴씸하기 비할 데 없다.

㊼ 다람이는 본시 량심이 바르고 온순한 족속이다.

평 정은 원의 판결을 받은 날 더 없이 원통하였지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래서 서 대쥐 같은 놈들과 그를 돕는 원과 사령들이 없는 먼 산'골짜기로 가게 된 것을 오히려 다행히 여겼다.

그의 자손은 많이 퍼졌으니 조상의 뜻을 이어 깊은 산'골짜기에서 다시 내려 오지 않고 철 따라 꽃동산에서 꽃 구경하고 나무 숲 속에서 나무 열매나 먹으며 바위 우에 내린 맑은 이슬을 마신다. 이리하여 다람이 족속은 쥐의 족속보다 세 곱절은 더 오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물레 바퀴를 잘 돌린다. 그들의 조상인 평 정이가 원에게서 정배살이 판결을 받고 먼 산'골짜기로 들어 가 그 원통함을 잊기 위하여 시작한 놀음인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㊽ 세상에서 사람들은 남녀로소 누구나 다 쥐를 만나기만 하면 입술을 씹어 물고 달려 들어 쳐 죽이거나 밟아 죽인다.

그러나 멀리 산'길을 가거나 숲속 깊이 나무하러 들어 갔다가 다람이만 만나면 아무리 불쾌하던 사람이라도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사랑하고 귀여워하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주지 못해 안타까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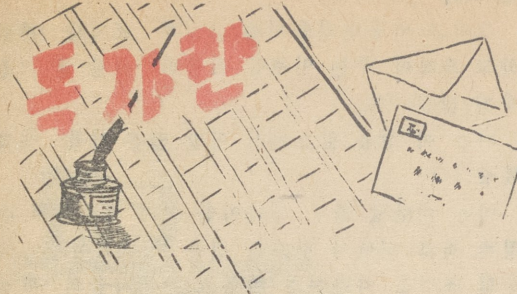
옛날의 그 원은 권세만 있지 지혜도 없고 슬기도 없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였다.

그때의 사령은 돈과 물품만 보았지 남이 죽고 사는 일에는 눈을 딱 감았던 것이다.

오직 백성들만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잘 알고 판단할 줄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 대쥐의 대로부터 쥐를 원쑤처럼 미워하고 평 정의 대로부터 다람이를 극진히 사랑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다.

나라의 일을 보는 자들은 이상의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잘 살피고 헤아려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끝)

우리는 이 글에서 서 대쥐나 원 같은 당시 지배 계급들이 얼마나 악착하고 교활한 놈들이며 한편 무능한 놈들이였는가를 알 수 있으며 평 정과 다람이들처럼 옳은 것을 위해 싸운 인민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

기쁨의 집, 행복의 집

오늘도 나는 옷차림 단정히
기쁨의 집, 행복의 집.
학생 소년 궁전에 들어 섭니다.

원수님의 동상 앞에 옷깃 여미며
저 궁전 높이 걸린 글'발을 읽습니다.
《지, 덕, 체.》

우리들은 꽃봉오리
붉게붉게 활짝 피라고
어서 피여 조국 앞날의 기둥되라고
원수님이 지어 주신 우리의 궁전…

세상에 부럼 없는 우리의 궁전
《라지오, 텔레비죤실》, 《자동차실》,
《모형 항공기 제작실》,
어느 관, 어느 실을 말하면 좋을가요
《오락실》, 《이야기실》, 《예술 체조실》…

우리의 학생 소년 궁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뛰놀고 싶은 곳 여기 다 있습니다.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 곳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운 지식 넓히고
몸과 마음 튼튼히 다져 나갑니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준비해 나갑니다.

평양시 서성 구역 룡북 중학교 단 문 영구

알아 두기

《그라프에 의한 2원 1차 련립 방정식의 해'법》

교과서에서는 직각 좌표계에 그린 그라프에 의하여 2원 1차 련립 방정식을 푸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배운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더 알아 봅시다.

례; $\begin{array}{l} 2X+y=16 \\ X+3y=18 \end{array}$ 를 풀어 봅시다.

② 다른 방법.

그림과 같이 똑 같은 자(눈'금)를 임의의 간격을 두고 평행이 되게 세운다.

그리고 $2X+y=16$에서 $\begin{array}{l} X=0 \\ y=16 \end{array}$을 정하고 A $(X=0)$와 C $(y=16)$을 맺는다.

그리고 $\begin{array}{l} y=0 \\ X=8 \end{array}$을 정하고

B $(y=0)$와 D $(X=8)$을 맺는다.

이때에 선분 AC와 BD는 점 E에서 사귄다.

여기에서 점 E를 지나는 직선과 X축 y축과의 교점은 $2X+y=16$을 만족시키는 X와 y를 가리킨다.

다음에 $X+3y=18$에서 $\begin{array}{l} X=0 \\ y=6, \end{array}$ $\begin{array}{l} y=0 \\ X=18 \end{array}$에 각각 해당하는 AM와 BN를 긋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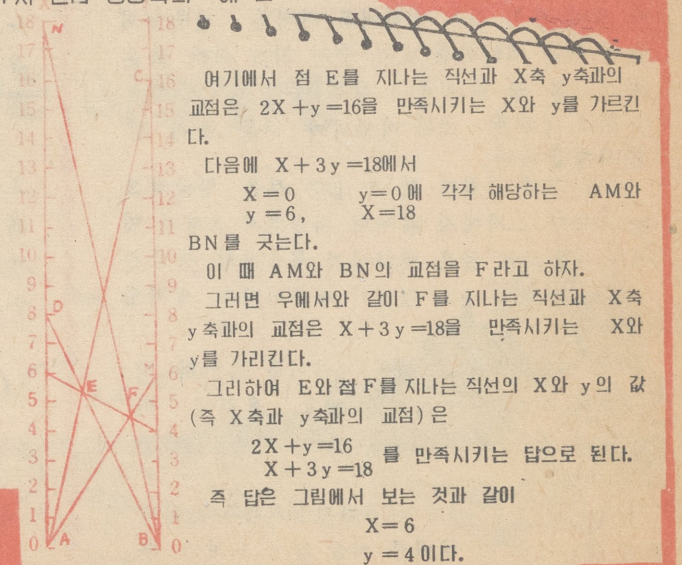
이 때 AM와 BN의 교점을 F라고 하자.

그러면 우에서와 같이 F를 지나는 직선과 X축 y축과의 교점은 $X+3y=18$을 만족시키는 X와 y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E와 점 F를 지나는 직선의 X와 y의 값 (즉 X축과 y축과의 교점)은 $\begin{array}{l} 2X+y=16 \\ X+3y=18 \end{array}$ 를 만족시키는 답으로 된다.

즉 답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X=6$

$y=4$ 이다.

(작문)

《아동단의 붉은 넥타이》를 읽고

나는 작년 《소년단》 잡지 11 호에서 손 명직 선생님이 쓰신 《아동단원의 붉은 넥타이》를 읽었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맨 붉은 넥타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느꼈습니다.

붉은 넥타이에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아동단원들의 붉은 피와 슬기로운 혁명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동단원들이 목숨처럼 귀중히 간직하고 지켜 낸 붉은 넥타이를 넘겨 받았습니다.

붉은 넥타이는 조선 소년단의 기본 표식으로서 소년단 기'발의 한 부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년단원이 민청원을 거쳐 조선 로동당원이 되겠다는 가장 큰 희망을 표시한 것입니다. 아동단원들은 언제나 붉은 넥타이를 만지면서 조직이 준 위임에 충실했고 배고픔도 헐벗음도 참아 내면서 원쑤놈들과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적의 불의의 습격으로 총에 맞아 숨이 지는 순간에도 더러운 원쑤들의 손에 붉은 넥타이를 넘겨 주지 않기 위해 붉은 넥타이를 땅 속에 묻어 슬기롭고 용감한 아동단원의 영예를 지킨 이야기가 나를 몹시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은 것은 일상적으로 아동단 조직에서 배우며 자라면서 조직이 얼마나 귀중하고 붉은 넥타이가 목숨처럼 귀중한 것임을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동단원들은 붉은 넥타이를 귀중히 간직했으며 이 붉은 넥타이를 매고 유격대 아저씨들이 주는 혁명 임무를 목숨 바쳐 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아동단원들처럼 그렇게 붉은 넥타이를 맨 영예를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동단원들처럼 그렇게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이 주는 임무를 귀중히 여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난날 붉은 넥타이를 그저 깨끗하게 손질해 매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생각했지만 그처럼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사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 받는 마음으로 붉은 넥타이를 매고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반드시 아동단원들처럼 붉은 넥타이를 귀중히 여기며 언제 어디서나 붉은 넥타이를 만져 보며 아동단원들처럼 조직을 사랑하고 그들처럼 혁명에 충실한 당과 원수님의 나어린 전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훌륭한 민청원이 되고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평양시동신 중학교 중등반 2학년
김 미화

(동요)

개구리 동동

저수지물 졸졸
노래하며 흘러 오니
우리 마을 논'벌에
개구리 개굴개굴

오늘은 보'물 따라
개구리 동동
새로 생긴 논'벌을
구경간대요.

빨간 기와집 새 마을
앞을 지나서
젖줄기 수로는
가도가도 끝없어요.

논에도 밭에도
쌀 풍년이 온다고
개구리 동동
수로 따라 구경 가요.

강원도 창도군 장현
중학교 중등반 3학년
리 승기

(작문)

《아동단의 규률》을 읽고

나는 잡지 《소년단》을 받을 때마다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읽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 12 호에서 최 광 선생님이 쓰신 《아동단의 규률》을 읽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아동단원들은 혁명의 위임이라면 어김 없이 실행하였습니다.

아동단원 황 정해 동무는 비밀 통신 련락을 가다가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조직과 혁명의 비밀을 고수하였으며 나중에는 원쑤놈들의 부대 비밀까지 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대목을 나는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것은 혁명 조직의 위임이라면 생명을 다하여 수행하는 아동단원들의 높은 혁명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동단의 규률》을 읽고 지난날의 나의 소년단 조직 생활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는 6.6절을 앞두고 체육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때 나는 분단 위원회에서 체육 대회날에 속보를 발간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 나는 속보 원고를 제때에 쓰지 못해 다른 분단들보다 한 시간이나 늦게야 속보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도 나는 별로 따끔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동단의 규률》을 읽으며 그 때 일이 생각나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만일 아동단원들처럼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의 위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겼다면 밤을 새우면서라도 속보 원고를 썼을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분단이나 반 생활에 참가하여 조직의 위임을 실행하는 데서 부족점은 이것뿐이 아니였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처럼 소년단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의 위임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김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훌륭한 민청원이 되고 나아가서는 로동당원이 되여 나라와 혁명을 위해 일하는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전사로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평양시 문수 중학교단
제14 분단 (모범 분단) 리 명희

(동요)

바다는 나의 희망

동해 바다 푸른 바다
조국의 바다
아침 파도 금'빛 파도
백사장을 적셔요.

동해 바다 푸른 바다
언제나 고기 풍년
통통통 기계'배
바다 멀리 나가요.

동해 바다 푸른 바다
희망의 바다
갈매기 너울너울
배'길을 알려요.

갈매기야 자랑말아
바다는 나의 희망
멀잖아 나도 간다.
너를 따라 나도 간다.

함경남도 인흥군 련동 중학교
중등반 2학년 리 춘형

현상 문제

(인민반)

밤 12 시에 비가 줄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72 시간 후에는 해가 쨍쨍하게 났습니다.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여 보십시오.

(중등반)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적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소년단원들의 이름을 들고 그들의 투쟁 내용을 간단히 적으시요.

(흥미 있는 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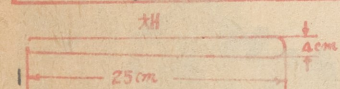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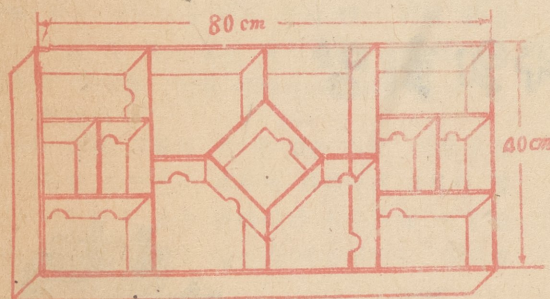
누가 더 빠른가?

이 놀음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흥미 있는 놀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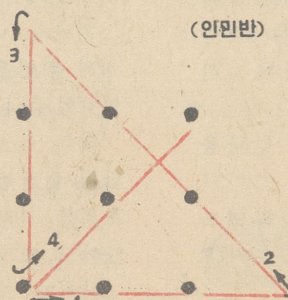
○준비할 것; 유희판, 채 2 개, 말 13~17 개. (그림)

이 놀음은 두 사람씩 한다.

○노는 방법; 경기를 하기 전에 함의 가운데 간에 말을 모두 넣어 놓는다. 두 사람이 채를 하나씩 들고 서로 마주 서서 함에 뚫린 구멍으로 말을 굴려 앞간까지 몰아 온다.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말을 앞간까지 몰아 온 사람이 이긴다.

※ 말은 한 개씩만 굴려 내야 하며 굴려 내던 말은 앞간까지 굴려 낸 다음 다른말을 또 굴려 내야 한다.

3 호 현상 문제 해답

(인민반)

(중등반)

정방형, 구형, 원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적은 주위의 길이와는 관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호 현상 문제 당선자

(인민반)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 중학교 리 미

함남도 홍원군 방평 중학교 손 계월

평북도 동창군 대동 중학교 장 인숙

함남도 대홍군 복흥 중학교 김 순녀

황남노 재령군 청룡 농업 학교 (인민반) 최 복선

함남도 신흥군 대동 중학교 림 성국

(중등반)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 중학교 김 순옥

평양시 중구역 종로 중학교 맹 은자

함북도 어랑군 이업 중학교 정 송금

함남도 고원군 상산 중학교 림 경아

황북도 황주군 석산 중학교 김 종일

청진시 송평구역 근동 중학교 박 옥숙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아프리카 중부 고원에 있는 부룬디라는 지방에는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과 가장 키 작은 사람이 살고 있다.

세계에서 제 일 키 큰 인종은 바투치인으로서 평균 2 m이다. 키가 제 일 작은 인종은 바토와인인데 평균 1.3 m이다.

잡지명 소년단 제 5 호 (류계 175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4 월 21일 발행 1964년 5 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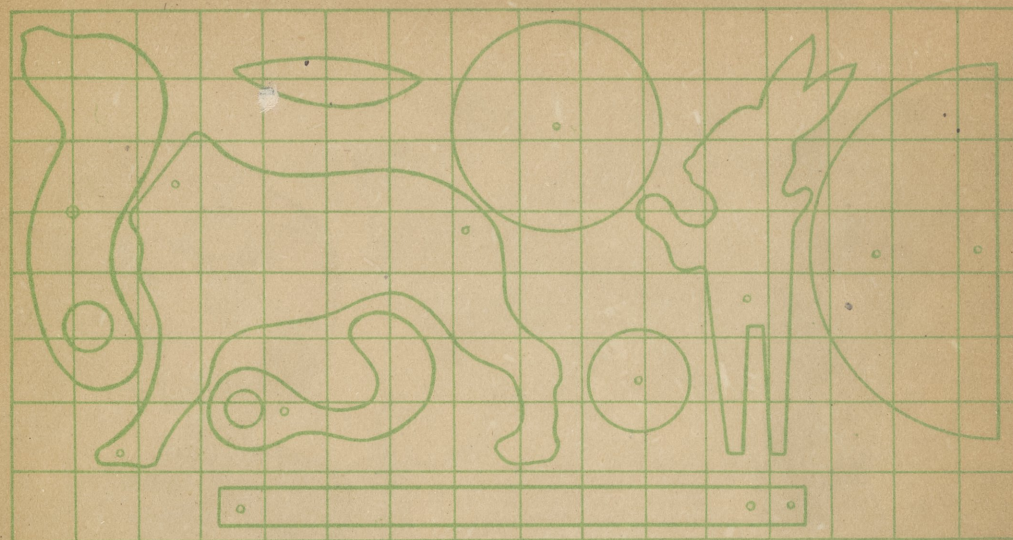
ㄱ—430196 값 35 전

정기 간행물
번호 제 13454 호

과학환상 만화

땅속의 보물을 찾아서

(제 7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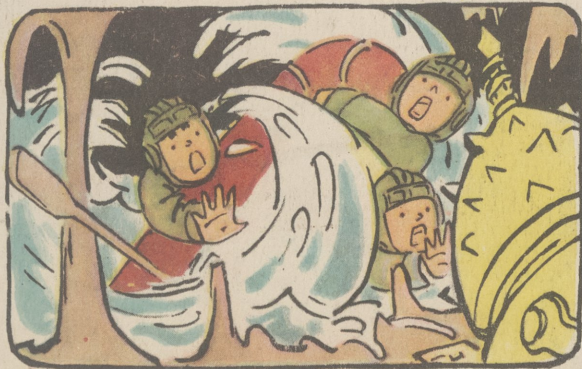
글 안형룡 그림 안창수

㉘ 그들은 타성파의 눈금이 가르치는 대로 동서쪽으로 1000 메터 되는 곳에서 금광맥을 찾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것이였다. 물을 따라 떠난 그들은 뜻밖에 낭떨어지기에서 떨어졌다.

㉙ 구명대의 역할을 하는 기계가 발동이 되자 차는 배처럼 물 우에 떴다. 수천 수만의 종유석(지하수에 석회암이 녹아 고드름처럼 생긴 돌)이 불빛에 보석처럼 빛난다.

그들은 한참 후에야 자기들이 땅 속으로 흐르는 물이 석회암을 녹여서 만든 큰 지하 호수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㉚ 지하 금강이라고 불리우는 땅 속 호수를 보기 위해 그들은 준비 해 가지고 갔던 고무배를 탓다.

《야! 정말 땅 속 궁전이구나!》

명희가 감탄했다. 명희가 수심을 재일때 관식이는 기념사진을 한장 찍으려고 서둘렀다. 그는 멋을 피우느라고 종유석 우에 기여 올으다가 쩜벙 물에 떨어졌다.

㉛ 관식이는 명희가 집어 던진 구명대를 잡고 고무배에까지 무사히 헤염쳐 왔다.

그들이 차에 가려고 고무배에 오르고 있을 때였다. 호수에 잔물'결이 일자 갑자기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었다. 물'결은 그들을 삼킬듯했다.

(다음 호에 계속)